

심의위 권고 무시한 檢 이재용 재판에 넘겼다

〈삼성전자 부회장〉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검찰 “삼성 조직적 불공정행위”
삼성 “검찰의 독선” 강력 반발

삼성 합병·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자체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번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이 부회장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불기소 권고를 견어 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7면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최지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한 채 총수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뤄져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이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 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의 기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 발표 직후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유독 이 부회장에 대해 수심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권고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심의위 제도를 악용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이낙연·김종인 협치 시동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6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차라리 문 닫는 게...” 외식업 눈물의 폐업

‘매출 절벽’에 영업제한까지 덮쳐
‘2.5단계’ 시행 속 임대료 부담 가중
외식업중앙회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 서울 송파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며칠 전 폐업을 결심했다. 근처 중·고등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다 인근 학원마저 휴원하면서 매출이 툭 떨어졌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오피스상권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안도했다. 그는 재계약 포기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했고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은 인테리어 철거에 들어간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임대료조차 버거웠던 그에게 계약 종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되는 일부 업종은 당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경우 일주일간 영업을 중단될 경우 월 매출의 20%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고정비가 그대로 지출될 경우 수익률은 크게 낮아진다. 심할 경우 적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면서 임대료 면제와 삭감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들도 부담이 커지면서 경감 조치를 속속 해제하는 분위기다. 매출이 감소한 데다 영업제한 규제까지 덮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커진 셈이다.

특히 외식업종의 위기감이 크다. 한국의 식업중앙회는 1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편성으로 침체된 외식업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6월 외식 소비에 반짝 회복세가 있었으나, 7월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외식업은 60% 이상 매출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전국에서 외식업은 ‘보복적 소비’에 따른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본격 지급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하거나 일부 지역은 전년 매출을 웃돌았다.

▶16면에 계속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대원 기자 leedw@

‘마이데이터’ 심사방식 변경에 보험사 직격탄

유사서비스 ‘보장분석’ 제외...KB손보·메리츠 예비허가 반려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갑작스러운 마이데이터 심사방식 변경에 직격탄을 맞았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보험사 모두 ‘반려’ 통보를 받아 결국 보험업권에서 예비허가를 받은 곳은 전무하게 됐다. 우선적인 이유는 금융당국이 변경한 심사기준인 ‘유사서비스’에 보험사의 보장분석서비스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 보험사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 땀 11곳(손해보험사 3곳, 생명보험사 8곳)이 사업 허가를 희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는 11월로 예정된 2차 접수를 노

리고 이번 심사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전 수요조사 때는 대형사들이 왔다”며 신청했지만, 정작 예비허가 때는 보험업계에선 단 2곳만 신청했다”며 “이미지도 반려 통보를 받아 금융권에서 보험업권만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소외된 분위기”라고 아쉬워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1·2·3차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에서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일괄적으로 우선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 유사서비스를 하고 있었느냐’가 우선 심사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제공해온 ‘보장분석서비스’를 당국이 기존 유사서비스로 보지 않아 보험사들은 신규사업자로 분류됐다. ▶9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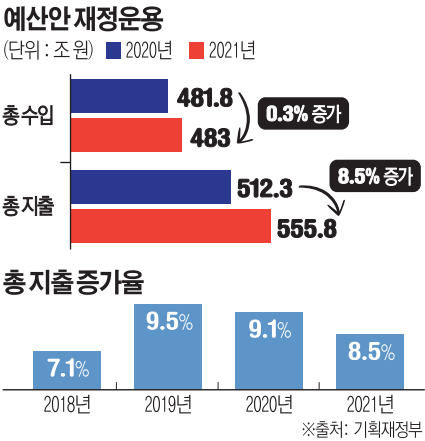
내년도 556兆 ‘초슈퍼예산’...945兆 나랏빚 ‘비상’

총수입 0.3% 증가한 483조 그칠 듯
적자국채 90조...재정건전성 ‘빨간불’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도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4·5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다만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

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 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6.9%p나 급증한다. 적자 국채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도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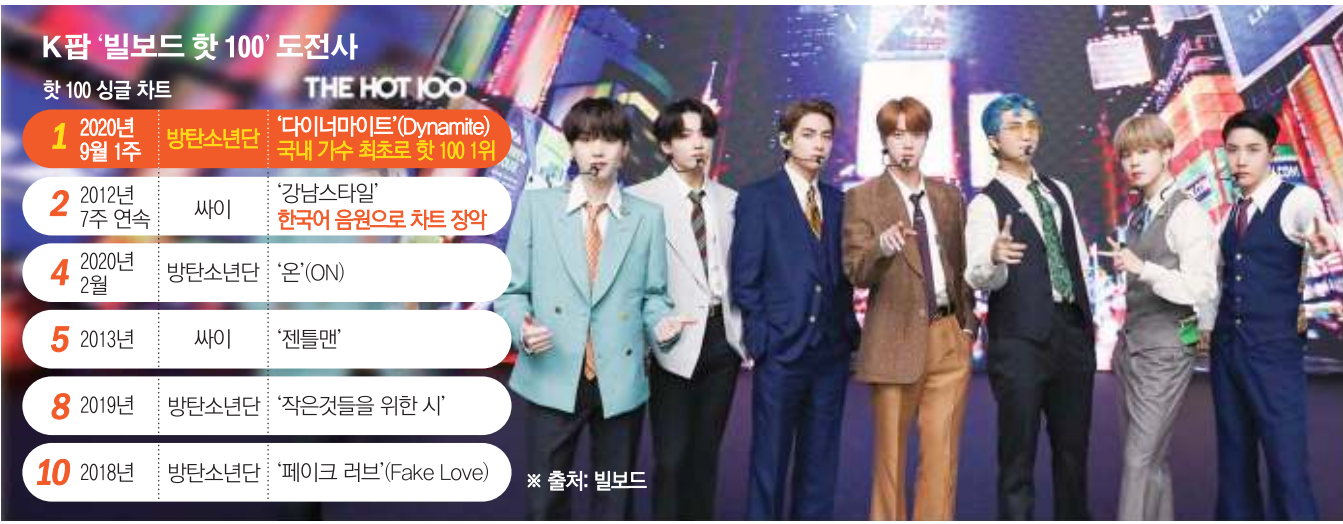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 터트린 BTS… 빌보드 싱글 1위 ‘새 역사’

팬덤 ‘아미’ 라디오 방송 사연 보내
팝 송스 차트’ 역대 최고 20위 등
사이의 7주 연속 2위 기록 돌파
외신 “슈퍼스타 마지막 경계 넘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1일(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최신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앞서 가수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당시 아쉽게 1위에는 오르지 못했다.
사실 한국 가수가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라디오 방송 횟수 때문이다. 싸이도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에서는 영향력을 보였지만, 라디오 방송 횟수 부문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 1위로 올라가는데 실패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는 이를 보완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미국 내 50개 주 지역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노래를 신청하는 ‘@BTS×50States’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그 결실을 봤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내 160여 개 라디오 방송국을 토대로 집계하는 ‘팝 송스 차트’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고, 1160만 명의 청취 인구를 확보했다.
인기 곡을 가리는 핫 100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는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힌다. 핫 100에서 아시아권 가수가 정상을 차지한 사례도 1963년

일본 출신 가수 사카모토 규의 ‘스키야키’, 2010년 한국계 멤버가 포함된 미국의 일렉트로닉 그룹 파 이스트 무브먼트가 ‘라이크 어 지식스’(Like A G6)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전부다.
이번 방탄소년단의 핫 100 정상 등극은 세계적인 그룹이 됐음에 방점을 찍는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이제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0일 MTV 주관으로 생중

계된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안무’ 등 4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특히 베스트 팝 부문에서는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할시, 조나스 브라더스,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하며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외신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데 대해 주목했다.
포브스지는 “방탄소년단은 팝 슈퍼스타로서 마지막 남은 경계를 뛰어넘었다”며 “다이너마이트의 성공은 서양 음악 청취자들이 비서구권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해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름없다”고 극찬했다.
USA투데이는 “다이너마이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2013년 결성된 방탄소년단은 재미있고 외우기 쉬운 멜로디와 긍정적인 음악으로 K팝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선봉에 섰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이스라엘 국적기>

‘중동 평화’ 새 이정표… 걸프 상공에 뜬 ‘다윗의 별’

이스라엘 대표단, UAE 방문
경제협력 논의 등 평화 급물살

지난달 중순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의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평화’라는 문구를 적은 이스라엘 국적기가 처음으로 걸프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등 양국 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

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표단 등을 태운 이스라엘 엘알항공 소속 보잉737기는 이날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출발해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국적기의 리야드 상공 통과를 허용했다. 사상 처음이다. 이는 사우디가 UAE의 평화 협정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전체의 화해 움직임을 상징한다. 비행기에는 중동 평화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아랍어와 히브리

어, 영어로 ‘평화’라는 글자도 새겼다.
이날 비행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미국 대표단도 동행했다. 유대인 출신인 쿠슈너는 이스라엘과 UAE의 평화 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 쿠슈너는 취재진에게 “전 세계 무슬림과 아랍인이 비행을 지켜봤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미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UAE는 지난달 13일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관계가 급진전

했다. 이스라엘은 합의에 따라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중단기로 했다. 합의 당시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표단을 보내 만나기로 했었다. 이번 회동에서 양국 대표단은 항공과 관광, 무역, 경제, 금융, 보건, 에너지, 안보 등 광범위하게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UAE는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으로 1972년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 보이콧법’ 폐지를 명령했다. 이 법은 이스라엘 국적자나 회사가 UAE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이 법이 폐지

되면서 UAE 기업과 개인이 이스라엘에 입국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시대”라며 “UAE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의 경제 협력의 성공은 다른 아랍국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국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구축을 위해 구조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UAE에 이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세계의 실질적 수장 역할을 하는 사우디는 이스라엘 국적기의 자국 상공 통과를 묵인했어도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최혜림 기자 rog@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檢 “시장 교란한 범죄” vs 변호인단 “기소 정해놓고 수사”

법정싸움 장기화 예고

검찰이 1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 회장을 기소하자 치열한 법정공방은 예고 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도입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자 이 부회장 측은 “독선적”,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더해 앞으로 수년간 서초동 법원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자체 개혁안 스스로 무너뜨려=

검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 1년9개월여 만에 이 부회장의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6월 26일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거쳐 10대 3의 과반수 찬성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자체 회의를 거쳐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 두고 양측

기소에 발 묶인 '뉴 삼성'

경영시제 제로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해외수주·자금조달 연쇄타격 불가피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경영은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뉴 삼성 비전’ 달성을 위해 경영 현장을 누비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검찰이 따를 것으로 잠시나마 기대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전례를 찾아보
기 힘든 '과잉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이 불가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
달렸다.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3번이나 받
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70차례 이
상 출석해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와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졌고, 50여 차례의 압수 수색과 430여 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부터 본격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던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의 주력사업 실적은 낙관할 수 없는 처지이며, 글로벌 경영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미·중 대치 심화, 한일 외교갈등, 중국 IT 기업의 급부상,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력 사업의 실적 감소 등과 함께 이른바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은 초유

심의회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검찰, 자체 회의 거쳐 결과 뒤집어

檢 “투자자 이익 기망한 합병 추진” 변호인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 반박

입장 갈려=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혐의가 얽혀 있어 재판 장 기화는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기록은 437권, 21만여 쪽으로 방대하다. 공소장은 130여 쪽으로 다듬기 전에는 160여 쪽에 달했다. 검찰이 조사·면담한 인원만 300여 명으로 재판에 출석할 증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입장에 참여하게 된다. 세월호
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두고 업무상배임
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 유포, 중요 정보는
폐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 부회장에
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법정에서 다툴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상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 “수사팀도 그동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이유와 삼성물산이 오히려 시가총액 53조 원에 이르는

의 복합 위기를 맞았다.

특히 오히려 경영자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과 같은 초대형 사업 구상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부의 차세대 주력 성장산업인 '바이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바이오산업육성'이라는 국가적 정책 기조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해외 공사 프로젝트의 경우 경영진의 기소만으로 주주심사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심화는 코로나19 사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 초대형 악재
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해 국제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수사 일지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2019년	5월 22일	검찰, 김태한 삼바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25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김모 부사장 등 구속영장 발부	
	6월 12일	검찰, 삼성전자 사인지점 TF 김모 부사장 등 증거인멸고사 혐의 구속기소	
	7월 16일	검찰,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20일	법원,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임직원 유죄 선고	
2020년	5월 26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조사	
	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조사	
	6월 2일	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9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수사종단 · 불기소 권고	
	9월 1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는 이익을 본 점을 고려해 의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재조명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 주요 혐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늘어난 법원 시계=이번 기

소로 이 부회장은 3년6개월여 동안 받아 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이어 또다시 법원을 오가게 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간의 수감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

정하지 않은 50억 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파기 환송심은 중단된 상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년 법관 인사 때까지 결론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김종용 기자 deep@

KB 금융그룹 | 국민과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그랑드스트리트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파에르 소라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부담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	--------------------------------------	---

KB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결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외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요구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언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의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업의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l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일자리 창출에 30.6兆… 청년·신혼 임대 11만호 공급

보건·복지·고용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 폐지
감염병 전문병원 301억 늘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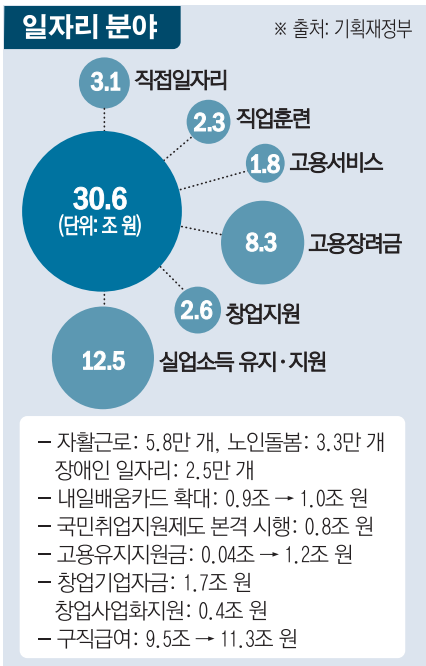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555조8000억 원 중 199조8959억 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인다. 증액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내년에는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중위소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의료급여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신과 입원이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며, 재가의료급여가 시범 도입된다.

청년에 대한선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돼 3만1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기준임대료도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 9만7000호에서 내년 11만 호로 늘어난다. 고령층에 대한선 기초연금 최대 기준금액(30만 원) 지급대상 확대와 함께 노인 일자리 공급이 74만 개에서 80만 개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10조2000억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도 강화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올해 12개소·28개소에서 내년 17개소·35개소로 늘어나며, 암 데이케어센터 설립에 78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30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보건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278억 원에서 79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3분의 1인 30조



6039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올해(25조4998억 원)보다 20% 증액된 규모다. 이 밖에 한국형 뉴딜에 2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고, 신산업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고용서비스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을 47.5% 증액한다”며 “직업훈련 쪽 규모는 많이 안 늘었지만, 비대면 투자와 신기술 분야 등 직업훈련의 효과가 큰 곳에 중점적으로 늘렸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 대표 사업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한국형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내년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되며,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선 구직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연계가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취업 취약계층과 신종년,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한선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 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안일환 2차관.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 용자 3.6조로 확대

산업·중소·에너지

스마트공장 보급 5.5조 투입
신재생에너지·수소경제 4.6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용자를 2조3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안을 올해 23조7154억 원보다 22.9% 증액한 29조1434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1조8677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용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용자 자금을 올해 2조3000억 원에서 내년 3조6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렸다.

지역·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위해 스마트상점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안	비고
무역 및 투자유치	1조182	1조1996	무역보험기금출연 (2960 → 4000)
창업 및 벤처	4조4011	4조9174	중소기업모태조입출자 (8000 → 9000)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8조4448	11조8677	신성장기반자금(용자) (1조3300 → 1조75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3조8751	4조6104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5746 → 8873)
산업혁신지원	4조7325	5조4894	소재부품기술개발(R&D) (6027 → 8866)
지식재산일반	3223	3457	IP-R&D 전략지원(R&D) (319 → 404)
산업금융지원	2640	365	산업구조고도화, 환경·안전투자(기온 출자) (2640 → 365)
산업·중소기업 일반	6575	6767	-
합계	23조7154	29조1434	22.9% 증가

1054개소에서 2만3000개소로, 스마트 공방은 20개사에서 6000개소로 늘린다. 스마트슈퍼(신규 800개사) 보급과 온라인 판로 지원(313억 원→734억 원)도 확대한다.

제조혁신을 위해선 5조489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지원한다. 산업 분야의 경우 노후된 지역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속도를 낸다.

무역금융 보장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해외 마케팅 확대 등 수출에도 총력 지원한다.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주, 신사업 진출 등 신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정책자금 5조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수출바우처도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려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수출 지원 등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 4조6104억 원을 투입한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및 초기 단계인 풍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연구개발(R&D)·임지 등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9개소), 수소튜브 트레일러 지원(16대) 등 생산·유통·안전 주기별로 지원이 시급한 핵심 인프라를 중점 구축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농수산물·외식 쿠폰 1890억… 청년농 육성

농림·수산물·식품

스마트 농업업, 한국판 뉴딜,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한 22조3754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영세 외식업체 지원 차원의 쿠폰 예산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지 임대료 2500ha에서 2800ha로 늘리며 영농 정착금 지원 대상도 48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7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9.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은 334억 원으로 6.3% 늘린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4곳을 내년 완공하고 스마트팜 임대 규모도 4ha에서 6ha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도 3곳에서 4곳으로 각각 확대해 농업업 스마트화 속도를 높인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투자 및 재해예방 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2030년 목표로 잡았던 농업업 저수지 원격수문 제어 시스템을 2025년 조기 구축하기로

했고, 2022년까지 수질자동측정망도 만든다.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저수지 개보수와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 배수개선사업 예산도 각각 12.7%, 1.8% 증액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추가 설치 296곳에서 390곳으로, 재해복구비는 2365억 원으로 103.5% 확대한다.

올해 추경에서 343억 원을 편성한 농수산물 소비 진작과 영세 외식업체 위기극복 차원의 외식 쿠폰은 내년에 670억 원으로, 올해 추경에서 620억 원을 편성한 농수산물 소비쿠폰은 1220억 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농어촌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어가 소득은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 연 150만 원 보장 △고령 농가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추세 등을 고려 연금지급 규모 확대(1479억→1809억 원) △부채 농가는 농가 부채상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농지매입 사업 확대(2800억→2979억 원) △경영 자금은 금융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300억 원 출연 등을 추진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내년 병장 월급 61만원… 남북협력기금 377억 증액

국방·통일·외교·교육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1억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이 60만 원대로 오르고, 국방 전력운영비로 36조 원 가까이 투입된다.

통일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1조2400억 원)이 올해보다 377억 원(3.1%) 증액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943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방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키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738

국방 분야 (단위: 억 원)	
1 전방위 위협 주도적 대응능력 지속 확보	
해·WMD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5조8070억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장	2조2269억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보장	6조4726억
2 국내 연구개발·양산 확대	
국방 R&D 예산	4조2524억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비중	74.7%
핵심기술 개발	6318억
부품 국산화 개발	886억
3 장비의 생활여건 획기적 개선	
병 봉급 인상	월 60만8500
1인당 급식단가 인상	8790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4만7000

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7.1% 증가한 35조843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전력운영비 증가율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병사 월

급이 12.5% 인상된다. 병장 월급의 경우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해 상황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1조2056억 원 대비 377억 원 증액했다. 이 중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6억→65억 원),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585억→955억 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 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외교부는 갈수록 격화하는 미·중 갈등 상황을 고려해 대(對)미국, 대중국 외교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3.6% 증가한 2조8432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예산은 76조3332억 원(6015억 원 증액)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내년부터 모든 학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 6594억 원에서 9431억 원으로 2837억 원 증액됐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확장재정 공감하지만...”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

2024년까지 재정지출 평균 5.7% 느는데 수입은 3.5% 증가 그쳐
코로나 따른 세수 여건 악화... 세입 기반 확대 구체적 계획 없어
전문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 가팔라...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진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다. 3분기 예상됐던 경기 반등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내년 세수는 올해 수준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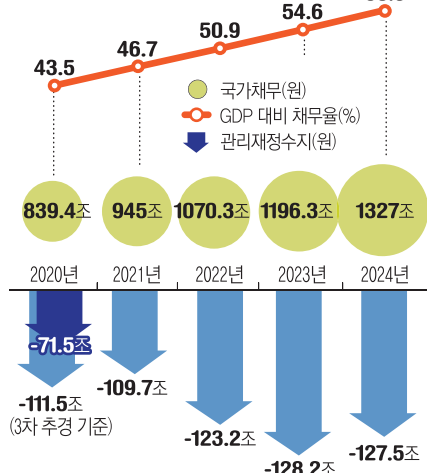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 증가 둔화의 주된 배경은 세수 여건 악화다. 국세수입은 올해 279조7000억 원에서 내년 282조9000억 원으로 3조2000억 원(1.1%)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의 계산법을 적용한 수치다. 올해 성장률이 하락하면 이는 법인세 등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할 때 세입은 약 2조 원 감소한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3월)을 고려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

2020~2024년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전망

※출처: 기획재정부



치는 0.1%였다. 코로나19 2차 충격이 발생한다면 성장률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밝힌 바 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1조5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폭은 내년

109조7000억 원(5.4%), 2022년 123조2000억 원(5.9%), 2023년 128조2000억 원(5.9%), 2024년 127조5000억 원(5.6%)으로 매년 100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내년 46.7%, 2024년에는 58.3%로 치솟게 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상성장률 수준을 넘어서는 총지출 증가 수요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사전절차, 공기,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가 있으니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철저히 집행 실적을 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고, 또 사업공기도 조정하고 연부액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입 기반 확대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세적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증세 등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상황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면 적자·부채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세원을 넓히고, 경우에 따라선 세수효과가 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출 증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수년 내 60%를 넘어설 상황”이라며 “이는 고소득자 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보편적 증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로 움츠러든 경제 살리기

‘SOC 카드’ 꺼내든 정부

예산 26조 편성 ‘사상 최대’
中企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기간시설 관리 디지털화 등
스마트기술·안전 분야 집중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며 11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서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하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에 재정투입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 원에서 내년 26조 원으로 2조8000억 원(11.9%) 늘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종전에는 2010년 25조1000억 원(국회 확정치)이 최대였다.

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SOC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17년 SOC 예산 증가율은 -6.6%였으나 2018년에는 -14.2%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SOC 예산을 소폭 인상(4%)한 후 올해 17.6%에 이어 내년 11.9%까지 2년째 10%대 증가율을 보이는 등 SOC 재정 투자를 늘렸다.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 효과가 확실한 SOC 카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디지털·안전 분야에 집중돼 있어 과거 토목 중심

SOC와는 차별화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도로, 철도, 항만 등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를 3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도로 유지보수에 6.1% 늘어난 6644억 원을 사용하고, 노후 시설이 많은 철도는 13.0% 증가한 1억29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는 1783억 원을 투입한다. 또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를 디지털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첨단 도로교통체계 마련에 5785억 원을 투입하고, 국가하천 1218개소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1800억 원을 투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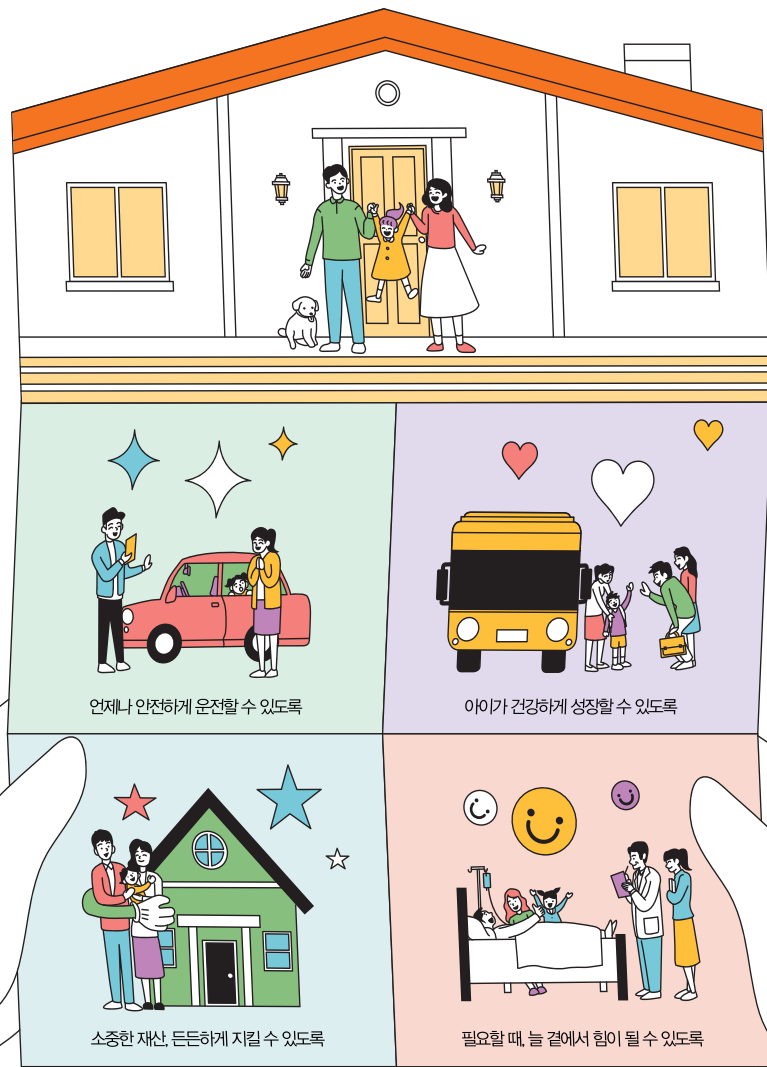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확충에 95억 원, 27개 도시 대상 스마트기술 확산에 1034억 원을 투입한다. 105억 원을 들여 드론 실증도시를 종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를 3곳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도 주력 SOC 분야다. 시설 연한이 15~30년 된 노후 공공건축물 1085개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2276억 원)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인증제 운영, 전문인력 양성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정부의 SOC 분야 재정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중국·미국·EU〉

8월 수출 ‘한 자릿수 감소’ 선방… “3대 시장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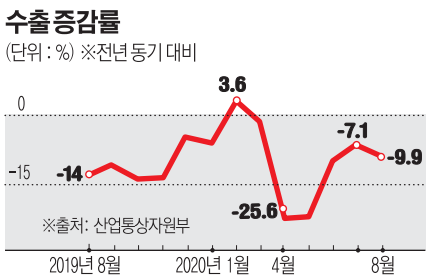
396.6억달러 전년 比 9.9%↓
일평균 18억달러 4월 이후 최대
2분기 성장률 -3.2%로 ‘최악’

한국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키며 일단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일평균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8억 달러대로 진입하는 등 회복의 불씨는 살렸다는 평가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다. 8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탓에 수출 개선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수출이 최악의 터널을 지나던 2분기(4~6월)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수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지만 개선세는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8월 수출액이 396억6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별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 6월 -10.9%, 7월 -7.1%를 기록한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다. 다만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 폭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1.5일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은 3.8% 줄어 코로나19 사태가 수출 성적에 반영된 4월 이후 최대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하고 있고, 조업일수가 부족한데도 8월 수출이 한 자릿수대 감소를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EU 등 3대 시장으로 수출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분기 성장률 -3.2% 금융위기 이후 최저…코로나 재확산 변수 =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은 전 분기보다 -3.2%로 집계됐다.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 내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그대로 반영된 2분기 수출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6.1% 급감했다. 이는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6개월 내 최악의 수출 성적표다.

3분기 들어 7, 8월 수출은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역시 연내 수출 반등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서 쉽게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등 위기 요인과 저유가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가 (수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가 되면 소비 위축이 될 것은 확실하고 봉쇄 자체가 일종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시하기 때문에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코로나 극복 입법 초점”… 100일간 예산·입법 ‘대장정’

21대 정기국회 막 올라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를 막고자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의 집중 처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어 여

공수처·부동산 법안 등 산적 박병석 “민생법안 집중 처리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주문

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각종 기업 규제 법안도 주요 쟁점들이다.

박 의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외에도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여야 협치 등도 주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62건(1.9%)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또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

다. 아울러 그는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며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제1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 건이 가결됐다. 재석 287명 중 100%가 찬성했다. 윤리특위는 총 12인으로 교섭단체를 동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여야 교섭단체 각 5인에 여야가 1인씩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이번 본회의는 각 국회의원 석 가림막 설치,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 속에 열렸다.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7일과 8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어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숨은 감염원’ 통한 재확산 가능성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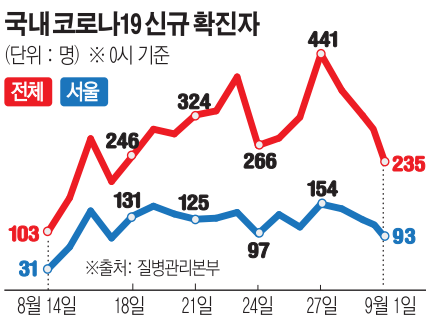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 2만명 돌파 최근 4명 중 1명 감염경로 불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3일째 300명을 밀돌았다. 추세상으론 확산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기상황’이란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는 곧 ‘숨은 감염원’의 존재를 의미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일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수치상으로는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조사 중인 환자가 많고, 또 수도권 외에도 각 지역에서 광범위한 발생이 누적돼 왔다”며 “안타깝게도 앞으로 시차를 두고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당분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235명 증가한 2만182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이 222명, 해외유입은 13명이다. 특히 위중·중증 환자가 104명으로 하루 새 25명 늘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사례의 경우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최근 위중·중증 환자도 급증했다.

12시(정오)까지 확인된 주요 감염 경로



별 확진자를 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83명으로 전일 대비 27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07명, 비수도권은 76명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34명(21.6%), 60대 이상은 437명(40.4%)이다. 현재까지 26개 시설·장소(170명)에서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도 419명으로 20명 늘었다. 비수도권 거주자가 195명으로, 집회가 사실상 전국 확산의 매개 역할을 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다. 8월 19일부터 이날까지(0시 기준) 신고된 신규 확진자 4421명 중 1076명(24.3%)은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을 통해 언제든 대규모 집단감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권 부분부장은 “지점등록 부탁하는 것이 거리두기, 마스크, 손 위생 등”이라며 “조금만 더 참고 이번 주말까지 착실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낙연·김종인 협치 외쳤지만 ‘원구성 갈등’ 재점화

金 “18개 상임위 재배분”에 李 “법사위 재협상 대상 아냐” 4차 추경 관련해선 공감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상견례를 가지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튼 모양새였지만, 속사정은 달랐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원상복구’ 등 원구성 협상에 관해 통합당이 재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오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발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쪽에서 못 하겠다

고 알려와 취소됐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측은 “의정실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갑자기 통보했다.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도 모르는 내용이었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하는 것은 상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정치가 원만하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 구성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지금과 같이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됐다”며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 대표는 “과거의 우여곡절을 다시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격정하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지는 의도를 드러내자, 이 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원하면서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원구성 재협상 카드를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선 공감대를 확인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차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차 추경은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며칠 안 걸릴 것이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오픈뱅킹 유목민들이여,

i-ONE뱅크에 정착하고 수수료와 이별하라!



IBK Global 홈페이지
'인터넷에코어워드 2020'
서비스혁신대상 수상

무료 정착! 송금수수료 완전 면제 0원

개인인터넷뱅킹, i-ONE뱅크(개인),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개인고객 누구나 타행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2020년 12월 31일 까지, 타행 자동이체는 제외)

준법감시인 상의필 제 2020-2014호(2020. 05. 04) 게시기한: 2021. 04. 2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트럼프·코로나 비켜!” 중국 ‘수출강국’ 포효

美 관세·공장 이전 등 악재 딛고
저비용·노동력·정부 지원 앞세워
7월 수출 ‘281兆’... 역대 2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도 ‘수출 강국’ 중국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무역에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폭탄과 주요국의 공장 이전 움직임,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수출길은 막막해 보였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돌파구를 찾아내 더욱 활발하게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역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7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2376억 달러(약 281조 원)로, 작년 12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 공장들은 작년 말 코로나19로 인해 폐쇄에 내몰렸다가 올 2월 말~3월 초 경제활동 재개 이후 공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NYT는 중국이 올 여름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제조 강국을 누르고 점유율을 더 높이면서 세계가 팬데믹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무역 우위를 확고하게 다졌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도,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수출을 멈추지 못한 것이다. 저비용과 숙련된 노동력, 효율적인 인프라와 기업 대출 확대 등이 중국 기업들의 부활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 팬데믹은 중국이 다른 수출국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중국은 세계 병원과 가계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 즉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와 다양한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동제한과 자택 대기 명령 등으로 전 세계 많은 가정에서 컴퓨터 스크린과 전동공구, 가정용 사우나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필요한 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IHS마킷의 라지브 비스워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비용 우위 덕분에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8년 12.8%에서 지난해 13.1%로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에는 약 20%로 올랐다”고 밝혔다.

NYT는 중국의 수출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 혜택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세계 주요국 중 거의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빠져나왔음에도 위안화 가치는 신비롭게도 약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위안화 가치는 최근 수개월 간 미국 달러화에 대해 소폭 올랐지만, 유로화에 대해서는 5월 초 이후 6% 하락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포스트 아베’ 스가 대망론

자민당 주요 파벌 지지 얻어... 14일 의원투표로 결정될 듯

전격 사임을 발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스가 대망론’이 굳어지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포스트 아베’를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 아베 총리를 배출한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2위와 4위인 아소파와 니카이파가 각각 그를 지지하기로 하는 등 당내 지지도가 약 60%에 달한다.

스가 대망론은 스가가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는 2일 출마 의사를 표명한 뒤 8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가 장관과 함께 3파전을 이루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날 오후 각각 출마를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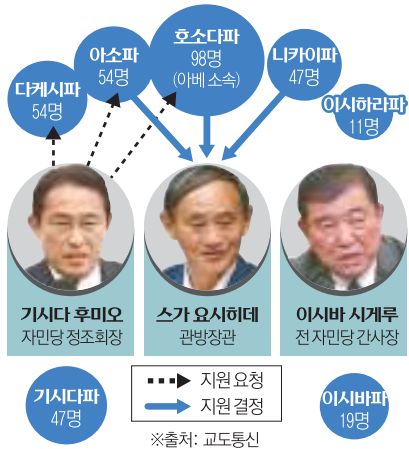
자민당은 이번 총재 선거를 약식으로 치르기로 정했다. 자민당은 이날 총무회를 열고 당원 투표 없이 양원(참의원

·중의원) 총회를 통해 당 총재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1시께 끝이 났다. 그만큼 선거 방식을 둘러싸고 논의가 뜨거웠다는 의미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젊은 의원과 중견 의원 약 10명은 당원 투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규정에 따르면 당 총재가 임기 도중 사임할 때는 양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하게 돼 있지만, 긴급한 상황일 시에는 선거 개최 없이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뽑을 수 있다.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되며, 14일 투·개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원 총회에서는 국회의원 표 394표와 자민당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 연합회 대표의 141표를 더해 535표로 차기 총재를 결정한다. 양원 총회 방식은 국회의원 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내 의원의 표를 절반 넘게 확보한 스가 장관이 유리하다.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를 둘러싼 파벌구도



반면,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야원 지지 기반이 약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세를 뒤집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었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데 정치학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원 총회로 총재를 선출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것”이라며 “반면, 당원 투표로 할 경우에는 당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이시바 전 간사장이나 기시다 정조 회장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피자 싸들고 현장 유세 재개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제1소방서에 피자를 들고 나타났다. 바이든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이후 첫 현장 유세지로 피츠버그를 선택,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현장 유세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히자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이니아/AFP연합뉴스

《전년비》 화상회의 앱 줌, 2분기 순익 34배 급증 ‘코로나 특수’ 깜짝실적... 주가 올 들어 378% ↑

화상회의 플랫폼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특수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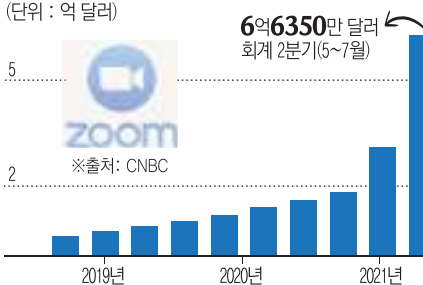
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2분기(5~7월) 매출이 6억6352만 달러(약 7876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약 4.6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억 8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34배 폭증하며 지난해 4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매출이 5억 달러, 순이익이 1억3400만 달러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줌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최대 승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도했다. 줌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의 확산으로 기업 일부 구성원만 사용하던 틈새 앱에서 동료와 가족, 친구와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존재감이 커졌다. 그 결과가 매출과 순익 폭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줌은 직원 10명 이상의 기업·단체 계약 수가 전년의 5.6배인 37만 건에 달하고, 계약 규모가 연간 1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의 계약 건수도 988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줌은 예상 외 실적 호조에 6월에 이어 실적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스 분기별 매출 추이



전망을 또 상향 조정했다. 줌은 올해 연매출 전망치를 23억7000만~23억9000만 달러, 조정 후 영업이익은 7억3000만~7억5000만 달러로 각각 높여잡았다.

6월 전망치는 연간 매출이 1억7800만~1억 8000만 달러, 조정 후 영업이익은 3억5500만~3억8000만 달러였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충격에 감원에 나섰지만, 줌은 고성장에 대응하고자 오히려 인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5~7월 5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전체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53% 늘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날 줌 주가는 나스닥 정규 거래에서 전일 대비 8.6% 급등 마감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25% 더 올랐다. 줌의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378% 뛰었다.

김서영 기자 ojung2@

테슬라·애플 액분 첫날, 개미들 ‘폭풍매수’

테슬라 12.6%·애플 3.4% 폭등
전세계 투자열풍에 ‘과열’ 우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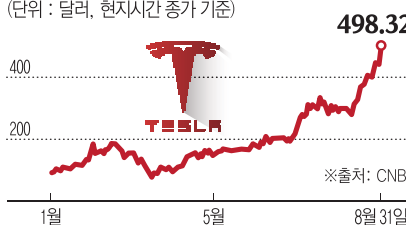
투자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식 쪼개기에 전 세계 개미들이 화끈하게 호응했다.

애플과 테슬라는 각각 4대 1과 5대 1의 주식 분할을 실시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 주문’에 힘입어 주가가 각각 3.4%, 12.6% 폭등했다고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로빈후드와 뱅가드, E·트레이드 등 미국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은 밀려드는 매수 주문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시 장애를 겪기도 했다.

애초 전문가들은 양사 주가가 분할 후에도 이처럼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분할하고 나면 주식 액면가가 낮아져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맞지만, 이미 미국 온라인 증권사 대부분은 정식 분할과 비슷하게 고객이 한 주를 쪼개서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분할의 영향이 과거만

테슬라 추가 추이



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개미들의 열정을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CNBC에 따르면 애플 주식은 이날 2억2340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는 30일 평균인 약 1억7859만 주보다 25% 많은 것이다. 테슬라 거래량은 1억1560만 주로 30일 평균인 7336만9000만 주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애플은 7월 30일 주식 분할 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34% 이상 뛰었고, 테슬라는 8월 11일 발표 이후 80% 넘게 폭등했다. 애플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76%, 테슬라는 무려 496%에 이른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테슬라 주식 약 1%를 보유

애플 추가 추이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계적인 투자 열기를 ‘기대 반 걱정 반’의 눈길로 보고 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다른 대형 IT 기업들도 향후 수개월 안에 주식 분할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음 타자로 아마존 닛컴을 꼽고 있다.

반면 오메가어드바이저즈의 리온 쿠퍼먼 설립자는 로빈후더의 적극적 참여를 시장 과열의 잠재적 징후로 봤다. 그는 “코닥을 보라. 주가가 매우 단기간에 1.50달러에서 60달러로 치솟았다가 다시 6달러로 추락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비정상적인 투자에 경종을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2차 심사 노렸는데…” 허가 신청 2주 만에 심사 통합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 기준 변경 ‘후폭풍’

금융권이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활을 걸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갑작스럽게 심사일정과 기준이 변경돼 업계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준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40여 곳을 대상으로 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1, 2차로 나눠 차수별 20여 개 사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수로 나눠 허가하면 기존 사업체 간 선점, 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해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 절차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차 심사는 8~10월, 2차는 11월~내년 1월, 3차는 내년 2~4월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절차를 변경하면서 지난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63곳을 대상으로만 1, 2차를 통합한 심사가 받게 됐다.

◇2차 심사 준비했는데.. 허탈한 금융사=문제는 절차 변경 전부터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기업이다. 1차 심사 이후 타 금융사의 실적 등 상황을 보고 올해 말에 있을

과열경쟁 우려 1·2차 일괄 심사 일부 업체, 연내 사업 진출 물거품

“미리 알았다면 준비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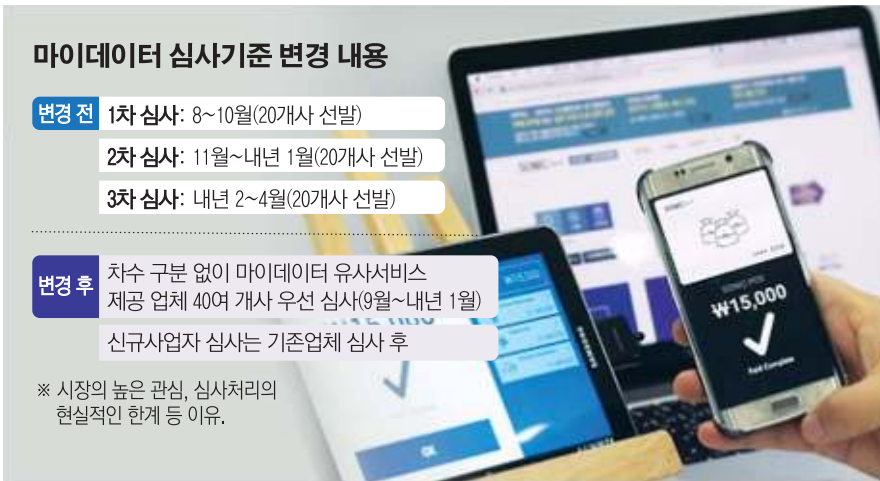
후발주자 ‘진입장벽’ 더 높아져

금융당국 인력난에 이해도 떨어져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가중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기업은 썩잖없이 내년에 열릴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다. 이들은 예비 허가 사전 신청이 끝난 지 2주가 지나서 나온 허가 절차 변경에 “이해는 하지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1월(2차 심사)을 노리던 회사들도 꽤 있다”며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에 맞춰서 준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준에 2차 심사를 준비했던 금융사 관계자는 “6~7개월 전부터 비용을 들여 준비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됐다”며 “기준 변경이나 라이선스 허가가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참여 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점에서 당국의 심사변경 의도는 이해하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먼저 서비스를 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진출하면, 신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은행, 카드사, IT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힘이 부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당국에서는 이전에도 기존 사업자들을 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심사일정이 미뤄지면서 신규 사업자로선 서비스 출시가 더 미뤄지게 된 셈”이라며 “계획이 변경되면

서 신규 사업자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인력 부족에 업계 이해도 떨어져… 설명해도 ‘무용지물’=현재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심사인력은 금융위 4명, 금융감독원 4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심사에 속도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당국의 다른 조직 인원들도 심사에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업계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이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보장분석서비스와는 별개로 보험계약조회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유사서비스로 예비허가를 신청

했지만, 이마저도 반력을 통보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여타 대부분의 보험사의 중복 가입 확인이나 보장분석과는 다르게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유도하지 않고 계약자가 직접 타 보험사에 가입한 계약내역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KB손보는 해당 서비스가 마이데이터라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 받아 지난 주 금감원에 설명했다. 그 외에도 마이데이터로 볼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한번 통보가 나간 사안에 대해 수정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계약조화와 보장분석을 구분해서 보는 지도 추가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 중 증권, 카드, 보험 등이 유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금융당국의 기준이 있었다면 이런 의문도 없었을 텐데, 마이데이터 기준에 대한 정의 없이 결과 통보만 하니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업계 전문가가 아니니 당국의 입장이 이해하지만, 업계의 의견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사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서지연 기자 sjy@

문수빈 기자 bean@

“고객 신뢰 추락 한순간… 사모펀드 사태로 통감”

신한금융 창립 19주년 기념식

조용병 회장 “서비스부터 사후관리 고객 중심 서비스 가치 재정립”

“오랜 정성으로 쌓아온 고객의 신뢰가 한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투자상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일 “유튜브(YouTube) 방송으로 진행된 그룹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한의 눈부신 성장은 고객의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가치로 고객신뢰를 회복하자고 구체적이 대안도 제시했다.

조 회장은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말로 약속하는 신뢰가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립해 고객의 믿음에 실질적 가치로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책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조 회장은 창립 시절 세 가지 가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그룹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새롭게, 알차게(가치있게), 따뜻하게’를 강조했다. ‘새롭게’의 핵심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을 꼽았다. 그룹의 모든 것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개혁의 과정이며 모든 기준은 ‘고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회장은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각오로 디지털 전환을 성공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알차게’ 실행 방안으로는 ‘고객 신뢰와 가치 재정립’을 내세웠다. 조 회장은 일련의 투자상품 부실 사태를 언급하며 “고객 신뢰가 한 순간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뼈

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자”고 독려했다.

‘따뜻하게’에서는 금융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자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소외계층 지원, 벤처·스타트업 육성,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 등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 수행에 신한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KB금융 자회사 ‘푸르덴셜생명’ 출범

“보험 마켓리더로 위상 강화 기대”

푸르덴셜생명은 1일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에서 KB금융그룹 자회사로의 편입을 기념하는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출범식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게 그룹 배지를 달아주며 보험업계 마켓리더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국내 최대 영업망을 보유한 KB금융과 생명보험 업계 최고 영업력을 보유한 푸르덴셜생명이 합쳐져 다양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푸르덴셜생명이 KB금융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푸르덴셜생명은 ‘생명보험의 가치를 더해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출범식 슬로건으로 정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KB금융그룹 내 안착과 댈류업을 꼽았다. 푸르



윤종규(오른쪽) KB금융지주 회장과 민기식(왼쪽) 푸르덴셜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1일 푸르덴셜생명의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기념 출범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덴셜생명의 강점인 △국내 최고 수준의 전속 설계사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 △안정적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등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하되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라이프플래너 채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해왔다”라며 “생명보험시장의 마켓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프리미엄 라이프플래너 채널을 만들어 수준 높은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보험업계, 마이데이터 사업 전열

▶1면서 계속

보험사들의 보장분석서비스는 설계사들이 신용정보원의 정보로 다른 보험사 고객의 계약 정보를 끌어와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에는 설계사들의 보험 영업에 중요한 수단이 됐다.

문제는 보장분석서비스를 마이데이터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보장분석이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없

다면 보맵 등의 핀테크 업체도 심사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데 포함돼 있다”며 “유사 서비스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애매해지자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협회는 당국에 보장분석서비스는 마이데이터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용정보법상 다른 법령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마이데이터로 볼 수는 없다는 법령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보장분석은 보험업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가 아니고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마이데이터는 기존 유사서비스로 보지 않았고, 결국 보

험사들은 마이데이터에서 신규 사업자로 분류돼 심사 일정에서 뒤로 밀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보장분석을 마이데이터로 인정받아 사업에 진출하고 싶었던 것이고, 업계 전반적 분위기는 보장분석이 마이데이터로 엮였다가 허가 받지 못하면 보장분석서비스를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 원치 않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보장분석이 마이데이터와 무관하게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와 앱을 폐지해야 한다.

저축銀 계좌로 ‘네이버페이’ 가능

저축은행 거래 고객도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네이버파이낸셜과업무 제휴를 통해 4일부터 네이버페이에서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용한 송금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환경을 더욱 촘촘히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송금사업자 3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 계좌를 통한 핀테크 기업의 간편 송금·결제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153건, 금액은 9억 원에서 지난 7월 2만5859건, 39억 원으로 건수는 5배, 금액은 4.3배 늘었다.

박재식 중앙회장은 “향후 핀테크사와의 제휴 및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을 편리하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영업시간 줄이자 점심시간 복적... ‘노마스크’ 제지 안해

현장 가보니 시중銀 ‘1시간 단축영업’ 시행 첫날

은행권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영업 시간 1시간 단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축영업으로 점심 시간에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직원 간 교대근무와 겹치면서 은행 내부의 대기 공간은 한순간에 북적였다. 체온을 재지 않고 들어오거나 마스크를 내려도 제재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난달 3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발맞춰 1일부터 은행 영업 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은행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6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문을 연다. 다만 시행 1일은 시행 첫날임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영업했다. 단축 영업의 이유에 대해 금융 노조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금융 소비자, 노동자의 감염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 이투데이가 직접 시중 은행들을 방문한 결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릎 펴면 달을 앞 사람, 사회적 거리

의자서 무릎 펴면 앞사람과 닿아 대기공간서 ‘2m 거리두기’ 무색

내부에 체온 측정계 비치했지만 고객 온도 체크 담당 직원은 없어 “코로나 방역 대책 실효성 의문”

두기 무색=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 위치한 A은행 영업점은 고객이 들어올 때마다 체온을 체크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온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다. 해당 은행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직원 앞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그뿐이었다. 고객이 대기하는 공간은 중앙 방역대책본부장이 강조하는 사람 간 2m 거리 두기는 지켜질 수 없었다. 대기 의자와 의자 사이는 앉아서 무릎을 펴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 새로 들어온 고객이 기존에 다리던 고객의 옆에 앉아도 은행 측에서 떨어져 앉으라는 권유는 없었다. 한 고객이 앉아 통화하자 그 고객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객은 인상을 찌푸리며 일



(왼쪽부터)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 A은행 문 앞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B은행 여의도종합금융센터장 문 앞에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어나 거리를 벌렸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객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해 좌석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영업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적어 대기 공간이 붐비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해명했다.

◇말뿐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근처 B은행도 비슷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은행 창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자 대기 고객들은 점차 늘어났다. 14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엔 사회적 거리 두기 없

이 10여 명이 앉았다. 한정된 대기 공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 시작해도 은행 측에서는 어떤 안내도 없었다. 한 고객이 마스크가 답답한 듯 마스크를 내린 채 대기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어떤 제지도 없었다. 은행 문 앞에 안내된 ‘영업적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했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가 안에서 벗으면 돼 은행에 들어올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 셈이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화’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의 마스크착용 규정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체온 안 재도 OK, 손 소독제는 꺾다놓은 보릿자루= 인근 C은행과 D은행은 체온을 재는 절차 없이 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체온측정계는 은행 내부에 있었지만, 측정계를 사용해 은행으로 들어오는 고객의 온도를 재는 직원은 없었다.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인 고열 증상이 있는 사람도 쉽게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은행 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재는 다른 은행과 차이 나는 지점이었다. 이곳에서 손 소독제는 꺾다놓은 보릿자루였다.

이날 은행을 찾은 한 60대 고객은 “오기 전에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고객은 “핸드폰으로 하지 못해 (모바일 뱅킹을 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은행 지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1시간 축소 영업과 관련해 “고객이 일찍 나가는 하는 일은 똑같다”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을 연 직후인 오전 시간이 가장 한산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줄인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글/사진=문수빈 기자 bean@

모바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시중銀 ‘비대면 영토 확장’ 가속도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정책자금들은 물론, 주택 관련 자금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오프라인에 비해 처리 속도와 진행 편의성, 금리 우대 조건 등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없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앱 솔(SOL)에서 서울시 이차보전대출을 신청·약정할 수 있

는 비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쏠에서 대출 신청과 한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에서 서명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쏠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대출 심사 후

대출한도, 기간, 금리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약정 과정도 쏠에서 가능하며 전자문서에서 서명만 하면 대출이 바로 실행된다.

같은날 하나은행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기업)’에서 소상공인 대상 보증서 대출이 가능한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 서비스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재단을 방

문할 필요 없이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비대면 대출상품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조화,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원큐전세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최저금리는 연 2.258%다. 앞서 IBK기업은

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아이원(i-ONE) 소상공인 부동산담보대출’을 내놔다. 기업전용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 기업’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한대출(대출 갈아타기)도 반응이 좋다. 최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출시한 비대면 담보대출(최저 연 1.6%대)이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예약에 신청자가 2만6000명이 몰리면서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최저 2%~4%인 점을 고려하면 라는 최저 수준이다. 김범근 기자 nova@

www.douzone.com

DOUZONE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을지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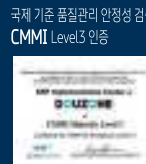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발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종합계량공간 DTEC



전문 컨설팅 그룹이
집중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



국제 표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페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화면 키우고 힌지 업그레이드…이젠 원하는 만큼만 펼친다

베일 벗은 ‘갤럭시Z폴드2’
펼침각 자유자재로 고정 가능
세워둔 채 사진 촬영·동영상 감상
두께도 0.9mm 줄여 ‘한손에 착’
11일부터 사전판매…239만원대

삼성전자 세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전작들보다 하드웨어 완성도를 높였고, 폴더블폰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다.

삼성전자는 1일 밤 11시(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Z 폴드2 언팩 파트2’를 온라인에서 개최하고 ‘갤럭시 Z 폴드2’를 공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삼성은 독창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폴더블 카테고리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왔다”며 “‘갤럭시 Z 폴드2’는 지난 폴더블폰에 대한 다양한 사용자 피드백을 적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출시 가격은 396만원.

사진제공 삼성전자

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드웨어와 사용자 경험 모두 의미 있는 혁신을 이뤘고, 구글·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인 협업까지 더해 모바일 경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시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2’는 전작에서 아쉬웠던 부분인 외부 화면의 크기가 커졌다. 접었을 때 외부 화면 크기는 6.2인치, 펼쳤을 때는 7.6인치다. 전작은 접었을 때 4.6인치, 펼쳤을 때 7.3인치였다.

외부 화면 크기가 대폭 커지면서 간단한

작업만 할 수 있었던 전작과 달리, 갤럭시 Z폴드2는 화면을 접었을 때도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지도·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 경험을 불편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졌지만, 베젤을 줄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 손에 착 감기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 한 손으로도 앱을 실행하고 전화를 받거나 셀피 촬영을 하는데 편리하다.

또 새로운 힌지(경첩)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각도로 펼쳐서 세워둘 수 있다. 일명 ‘플렉스 모드’인데 별도의 거치대 없이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카메라는 총 5개다. 후면에는 각각 1200만 화소의 초광각·광각·망원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에도 각 1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멀티 태스킹도 강화했다.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가 한 단계 진화했다. 화면 레이아웃을 더욱 쉽게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앱을 2개의 창에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구축된 폴더블폰 에코시스템도 강점이다.

삼성전자는 현대 패션의 선구적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갤럭시 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사진〉에는 ‘갤럭시 워치3’ 41mm 모델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포함된다. 7일부터 사전 한정 판매하며 국내 출시 가격은 396만 원이다.

국내에서 5G 모델로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2 5G’는 오는 18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11~15일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미스틱 블랙과 미스틱 브론즈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239만8000원이다.

송영록 기자 syr@

석유公·GS에너지 ‘UAE 유전’ 8000억 출자전환

개발 컨소시엄 ‘카독’ 재무 개선
장부가액도 4억→1711억 조정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며 ‘잭팟’을 터뜨린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 사업에 8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했다.

장기간의 유전 개발로 자본잠식에 빠졌던 공동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GS에너지는 6월 열린 이사회에서 UAE 유전 개발을 위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설립한 카독(KADOC Ltd)에 출자전환을 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최근 이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기업에 빌려준 대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카독은 2012년 GS에너지와 석유공사가 원유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각각 25%,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독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함께 2012년 3월 아부다비와 광구 참여계약을 맺고 탐사를 진행해 7년 만인 지난해 7월 할리바 유전에서 상업적 매장량을 확보했다. 이 유전의 지분은 ADNOC가 60%를 가지고 있으며, 카독의 지분율에 따라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각각 30%, 10%를 보유하게 됐다.

카독은 유전이 터지기 전까지는 개발 사업이다 보니 이렇다 할 매출이 없어 매년 손실했다. GS에너지와 석유공사는 유전 개발을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해왔다.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다 보니 카독의 재무구조는 악화하기 시작해 결국 자본잠

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최근 카독이 유전의 상업생산에 성공하면서 GS에너지와 석유공사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대여금의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카독은 올해 상반기 매출 686억 원, 순손익 82억 원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GS에너지의 출자전환 규모는 약 1970억 원이다. 카독의 지분율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석유공사는 5910억 원가량의 출자전환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7880억 원에 달하는 출자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GS에너지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카독에 대해 재무제표상 장부가액도 수정했다. 유전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카독의 장부가액은 4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반기보고서에서는 171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화학, 1~7월 전기차 배터리 1위 수성

LG화학이 올 1~7월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수성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약진하며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되는 쾌거를 거뒀다.

1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

(EV·PHEV·HEV)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화학이 중국 CATL을 따돌리고 누적 점유율 25.1%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7월까지 누적 13.4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4% 성장했다. LG화학은 테슬라 모델 3(중국산)와 르노 조에,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EV) 등의 판매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6.4%, 4.1%의 점유율로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 양사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86.5% 증가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약진에 3사의 합산 점유율도 35.6%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15.9%)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볼보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
6030만원부터…국내 공식출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1일 플래그십 세단, 신형 S90〈사진〉을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브랜드 홍보대사 손흥민과 함께한 새로운 광고도 공개했다.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새 모델은 △보다 정교해진 디자인 △동급 최고의 차체 크기 △넓어진 실내 공간 △혁신 기술 △친환경 파워트레인 등의 변화를 담았다.

신형 S90은 모든 트림에 첨단 안전 패키지인 ‘인텔리 세이프(IntelliSafe)’를 동일하게 갖췄다.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 중앙에 맞춰 조향을 보조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II(Pilot Assist II)와 차랑, 보행자, 자전거, 대형 동물을 감지하고 교



차로 추돌 감지 기능이 추가된 긴급제동 시스템인 △시티세이프티(City Safety), △도로 이탈 완화(Run-off Road Mitigation) △반대 차선 접근 차랑 충돌 회피

(Oncoming Lane Mitigation) 등 볼보 자동차의 안전 노하우가 집약된 기술이다. 신형 S90의 국내 판매가는 6030만~8540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LG전자의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가상전시관. 제품을 클릭하면 설명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LG,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가상전시 비어만 현대차 사장 ‘수소사회’ 소개

獨 IFA 2020 내일 개막

온·오프 행사 병행…삼성 불참

미국 CES·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전자업계 행사로 손꼽히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가 3일(현지 시간) 개막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반쪽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부 국내 기업은 신기술이 탑재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인다.

1일 IFA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반영된 올해 IFA 참여 신청 기업 규모는 1009개로, 예년과 비교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대부분 기업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신제품을 소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장은 한산할 전망이다. 하루 관람객도 업체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해 1000명으로 제한된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불참한 가운데, LG전자가 IFA를 통해 유럽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을 소개한다. 행사 첫날인 3일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사장)가 연사로 나서 ‘집으로부터 좋은 삶이 시작된다(Life’s Good from Home)’를 주제

로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

LG전자는 이날부터 열린 가상전시 공간은 매년 전시를 열어온 메세 베를린(Messe Berlin) 18홀을 본떠 만들어졌다. 전시된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의 상세 이미지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는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전과 소비자의 관계에 주목한다. 내달 말 스페인 출시를 앞둔 인스타뷰 냉장고와 컨버터블 냉장고를 포함해, 가정용 프로젝터 ‘LG 시네빔 레이저 4K’도 선보인다. 얼마 전 의료진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가칭)’도 일부 국가 출시를 앞두고 IFA에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현대차도 올해 IFA에 처음 출격한다. 혁신 기술을 논하는 부대 행사 ‘IFA 넥스트’에 참가해 수소 전기차 등 미래차 전략을 밝히기 위한 선택이다.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온라인을 통해 행사 첫날 연사로 나선다. 발표 주제는 ‘미래 연료, 수소 사회로 가는 길을 열다’이다. 한편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 의사를 밝힌 중국기업 수는 현재까지 952개로, 전체 중 약 90%를 차지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LS그룹 유튜브 ‘LS 티비’ 개국

LS그룹이온택트(On tact) 시대를 맞아 온라인·SNS상으로 임직원 및 고객, 독자와 더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LS티비’를 1일 개국했다.

LS는 이날 LSET비 개국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가 익숙한 MZ세대를 비롯해 임직원, 비즈니스 고객,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대중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LS는 기존의대학생기자단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의 시너지를 통해 젊은 세대들과의 점점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SET비는 ‘(LS에 관한)무엇이든알려드립니다!’라는 콘셉트로 주로 ‘사업·기술’, ‘채용·회사생활’, ‘대학생기자단(20대 관심사)’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다룰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주)한화, 무역부문 재편 철강·식품사업 손넌다

유화·기계 무역은 타부문 통합
코로나 극복 위한 '선택과 집중'
연간 200억 수익성 개선 기대

(주)한화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부문 사업을 재편한다.

무역부문의 사업 중 유화·기계 사업은 향후 지속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기존의 화약·방산, 기계 부문으로 통합하며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철강과 식품 등 일부 사업은 완전히 접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 재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발목 잡혔던 무역 부문의 실적 부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한화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 사업 수익성 향상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무역부문의 유화 사업은 화약·방산부문으로 통합하고, 기계사업은 기계 부문에서 흡수해 무역 대행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무역부문에서 영위하던 사업 중 철강, 식량자원 사업 등은 불투명한 사업환경이 지속하면서 한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정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직 매각과 청산 등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화는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부문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자 선제 대응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무역부문은 업황 악화로 지난해 4분기 32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뒤 유가하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

시장이 침체하며 약 25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화는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사무소 6곳을 폐쇄하며 실적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했다.

(주)한화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내부 사업간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편은 자체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회사 수익을 개선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고 미래 가치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화는 무역 부문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지난해 입사한 직원들까지 포함된다.

무역부문의 직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281명으로, 이 중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240여 명으로 전해졌다.

(주)한화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비용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학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희망퇴직 인원은 없으며, 희망자를 받은 뒤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한화는 지난달에는 지속성장 및 미래가치 확보 차원에서 한화정밀기계로부터 협동로봇사업을 양수, 기계부문으로 통합하는 사업구조 재편을 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소셜밸류커넥트2020 개막
사회 문제 해결 위한 민간축제
24일까지 사례별 온라인 방송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축하
"기후 변화 해법, 모빌리티 추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가치도 본질에서 협력할수록 더 커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일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 최대 민간축제 '소셜밸류커넥트(SOVAC) 2020' 온라인 개막식에서 "사회문제는 협력할수록 더 효과 있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SOVAC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여러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언제나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길 기대한다"며 "틀을 깨는 사고와 생각이 즉각적 실행으로 이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기존 틀을 깨는 시각을 공유하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행복 플랫폼이



'SOVAC' 개막식에서 축하하는 최태원 SK 회장.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하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마틴 브루더뮐러 바스프 회장 등도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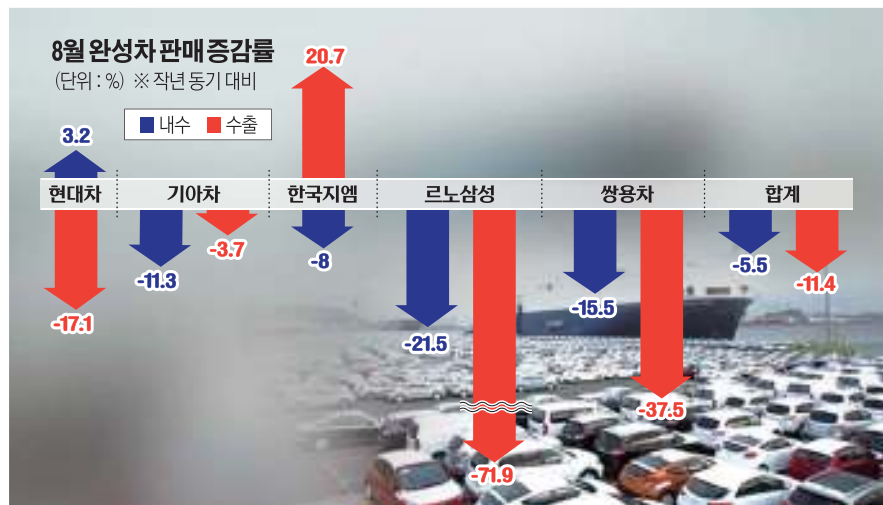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바탕으로 '이동의 진화'를 꼽았다. 그는 "이동의 진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 고객에게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 제공하는 것이 현대차의 사회적 가치"라며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 문제의 실질적 해법으로 전기·수소차 중심의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수소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와의 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미래와 지속가능성 위한

ESG(환경·안전·지배구조)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SK그룹의 사회적 가치와 포스코의 기업 시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며 그룹 차원에서 강조하는 '기업 시민'을 내세웠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으로 금융의 선한 영향력 통해 이해관계자 변화하는 '파이낸스 포 임팩트(finance for impact)'를 실천 중"이라며 상생의 가치, 신뢰의 선순환, 환경의 보전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마틴 브루더뮐러 바스프 회장도 "우리는 과거보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협력하며 긴급한 도전 과제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VAC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24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현대기아차, 8월 판매 선방...한국지엠, 13% 증가

현대차 14% 기아차 5% 감소 그쳐

현대·기아자동차의 8월 국내외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었지만 급감하지는 않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현대차는 8월에 국내 5만4590대, 해외 25만8400대 등 총 31만299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1만7403대)보다 14.2% 감소한 규모다.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2%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가 17.1% 줄어들면서 전체 실적은 지난해에 못 미쳤다.

기아자동차의 국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한 21만6945대에 그쳤다. 내수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한 반면, 해외 판매가 선방하면서 그나마 판매

폭감을 면했다.

한국지엠은 8월 한 달 동안 총 2만774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내수판매는 58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 반면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앞세운 수출은 2만1849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쌍용차의 8월 판매는 내수 6792대, 수출 1235대 등 총 8027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9% 감소한 규모다.

르노삼성자동차는 8월에 내수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감소한 6104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출도 1466대에 그쳐 8월 한 달간 총 7570대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42% 줄어든 규모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기능식품

명작수

건강한 일상이 소중해진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LG U⁺, 세계 첫 ‘5G 콘텐츠 연합’ 의장사 맡는다

美 퀄컴·中 차이나텔레콤·日 KDDI 등 6개국 7개 기업 참여
‘XR 얼라이언스’ 출범… 고품질 확장현실 콘텐츠 개발 협력
첫번째 프로젝트는 우주 정거장 ‘ISS’서 촬영된 VR 콘텐츠

LG유플러스가 5G 콘텐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시작한다. 글로벌 기업 간 5G 콘텐츠 연합체를 구성을 통해 고품질 확장현실(XR) 콘텐츠 개발을 주도하고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출범 첫째 의장사를 맡아 향후 협력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1일 LG유플러스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6개국의 7개 사업자가 글로벌 XR 산업 육성을 위한 5G 콘텐츠 동맹체 ‘XR 얼라이언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장현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포함해 향후 나올 수 있는 모든 신기술을 포괄하는 용어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LG유플러스가 의장사(퍼실리테이터)를 맡고, 미국 반도

체 업체 퀄컴, 중국 차이나텔레콤, 캐나다의 벨 캐나다와 펠릭스 앤 폴 스튜디오, 일본 통신사 KDDI가 참여한다.

이번 연합체 참여사들은 협업을 통해 5G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브라이언 보겔상 퀄컴 테크놀로지 제품 관리 시니어 디렉터는 “XR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로서 세계적 수준의 사업자 및 콘텐츠 회원사와 협업을 통해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X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5G XR 기기가 선보일 물입도 높은 프리미엄 기능을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링 차이 차이나텔레콤 마케팅부서 부사장은 “통신 사업자가 5G 콘텐츠에



LG유플러스가 1일 KDDI, 펠릭스 앤 폴 스튜디오, 차이나텔레콤, 벨 캐나다 관계자와 온라인 콘퍼런스 콜을 통해 세계 첫 5G 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왼쪽부터 신중경 VR콘텐츠팀장, 김준형 5G서비스그룹장(상무), 이상민 FC부문장(부사장), 최윤호 AR/VR서비스팀장(상무).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글로벌 XR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XR 얼라이언스는 콘텐츠를 정기적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회원사들이 매월 투자를 진행하거나 사전 저작권을 확보할 콘텐츠를 결정하면 파트너사들이 제작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첫번째 프로젝트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 촬영된 콘텐츠다. 정식 명칭

은 ‘스페이스 익스플로러: 더 ISS 익스피어런스’이며 XR 얼라이언스의 공식적 첫 VR 영상이 된다.

펠릭스 앤 폴 스튜디오와 미국의 타임 스튜디오, 국제 우주정거장 미국 국립연구소, 미국항공우주국(NASA), 캐나다 우주국 등과 협력해 3D VR 최초로 실제 우주에서 촬영한 ‘우주 유영(Spacewalk)’의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다.

XR 얼라이언스는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이동통신사들을 회원사로, 제작사들은 파트너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아시아 및 북미, 유럽 지역의 이동사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퀄컴과 같은 생태계 확장을 위한 협력사도 늘려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로 이은 세계 최대 5G 콘텐츠 동맹체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LG유플러스 FC부문장(부사장)은 “해외 5G 산업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다수의 글로벌 통신사들이 콘텐츠·기술 등이 앞서 있는 한국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AR과 VR 시장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초대 의장사 역할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XR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XR 얼라이언스 연계를 통해 이러한 비용적 효율을 높이고 기술적 완성도도 더할 수 있다”며 “단순 제휴나 협력사 개념을 넘어서 실제 콘텐츠 제작, 제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람 기자 hura@

‘알뜰폰 허브’ 리뉴얼 첫날부터 ‘먹통’ 오전시간 홈페이지 연결 제대로 안돼 사용자 불편 사이트 내 구매 못하고 전용앱도 없어… 개선 필요

알뜰폰(MVNO)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가 1일 리뉴얼 오픈, ‘알뜰폰’과 ‘자급제폰’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용자 직관성이 떨어지는 등 불편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알뜰폰허브사이 트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포털 개편 핵심이 소비자가 요금제를 손쉽게 비교해 맞춤형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급제폰 등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알뜰폰허브 이용은 사용하길 원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 범위를 직접 설정해 요금제를 비교·검색해 구입하면 된다.

단말기는 제조사 자급제 신규 단말기 사이트를 비롯해 주요 중고단말기 판매사이트와 연계해 구입할 수 있다. 알뜰폰허브에서 구입하면 각 알뜰폰 통신사 상담원과 확인 전화를 거친 뒤 택배로 유심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끼워 넣으면 개통된다. 통산 10G 이상 데이터와 문자와 통화 월 100분 서비스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요금제는 1만7000원대에서 2만 원대 초반이다.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월 최대 4만 원을 넘지 않는다. 통신 3사 무제한 서비스는 7만~9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리뉴얼 오픈한 알뜰폰허브 사이트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중고 단말기 및 최신폰 판매 사이트는

기존 판매 사이트와 연동만 해주다보니 결국 홈페이지를 한번 더 들어가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중고단말기 판매회사 등의 개별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구입하는 과정 자체가 피로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쿠팡이나 카카오 등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채널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급제폰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알뜰폰허브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 없어 오직 인터넷 포털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인지 앞뒤로 화면을 이동할 때 직전 화면이 아닌 홈페이지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초기화 현상도 잦았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아닌 노트북과 PC에서 보는 사이트 화면 역시 요금제와

자급제폰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전체 화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넓고, 정작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창은 화면 아래쪽으로 잘 보이지 않게 배치돼 직관적이지 못했다. 오전 8시까지 일부 사용자들에게서 홈페이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이른 바 ‘먹통’ 현상을 빚기도 해 서버 안정도 개선점으로 남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허브 입점 사업자를 더 늘리고,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 등 비대면 인증수단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리뉴얼 초기지만 이달 안으로 알뜰폰 업체에서 다양한 전용 이벤트 상품을 출시하는 등 포털 활성화와 요소가 많아질 것”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에이든(AIDEN) 드론 기반 순회 점검 서비스가 굴착공사 현장을 찾아낸 모습.

SK(주) C&C, AI 드론 활용 안전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SK(주) C&C가 비전 AI를 활용해 디지털 SHE 사업을 확대한다.

SK(주) C&C는 SK E&S와 함께 개발한 ‘에이든 드론 기반 순회 점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확장 지역은 청주와 구미, 포항, 춘천 등이다.

드론 점검 서비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주변CCTV·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안전 관리 서비스다.

SK(주) C&C의 비전 AI 솔루션 ‘에이든’과 연계한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안전관리 취약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가스관 등을 감시한다. 비전 AI는 인간의 시각적 인식 능력을 재현한 인공지능을 뜻한다.

조성준 기자 tatio@

중소 일자리 호감도 52.6점 대기업보다 22.9점 낮아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52.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제언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52.6점으로 대기업(75.5점) 대비 22.9점 낮았다.

이다원 기자 leedw@

과기부, 코로나 대응 등 R&D에 27.2兆

올해보다 11.2% 증가… ‘한국판 뉴딜’에 1조8800억 투입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올해보다 2조7471억 원 늘어난다. 이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안이 올해보다 11.2% 증가한 27조2003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 예산 16조5000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예방 등을 5대 중점 투자분야로 설정했다. 이 중 감염병 대응에 4300억 원을 투입하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

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에 1조8800억 원을 투입하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및 신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G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부터 양산까지 2조15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방통위 예산 2439억… 콘텐츠 경쟁력 강화

EBS 실감콘텐츠 지원 13.6억
‘불법 음란물 차단’ 예산 포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 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 원, 재난방송 대응, 미디어 리더러시 교육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299억 원 등을 중점 투자한다.

특히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 원)과 공동체라디오(2억 원), KBS 대외방송

(78억 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부각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4억 원을 증액했다.

이재훈 기자 yes@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크골프클럽으로 **100_{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믿었던 명품마저 흔들… 거리두기에 떠는 백화점

판매 회복세 '브레이크' ... 실적 최악 '3월의 악몽' 재현 우려
롯데百 지난 주말 매출 44% 뚫...신세계·현대 21%·18% ↓

완전한 판매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던 백화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후에는 그간 실적 부진 속에서도 나홀로 선방하던 명품마저 구매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3월의 악몽이 재현될까 업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장장(-15.5%)과 여성계주(-27.2%)의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가정용품은 11.6%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신장했다. 특히 해외여행 감소에 따른 반사적으로 해외 브랜드 매출은 32.5% 치솟았다. 6월 증가율 22.1%보다 10.4%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영향권에 접어든 지난 2월 이후 가장 준수한 성적이다. 2월 -21.4%로 역신장했던 백화점 매출은 3월 -40.3%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다만 이를 저점으로 백화점 3사의 매출은 5월(-7.4%)과 6월(-3.4%)에는 연이어 낙폭을 축소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가던 백화점에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

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소비자들이 집밖 외출을 삼가면서 곧바로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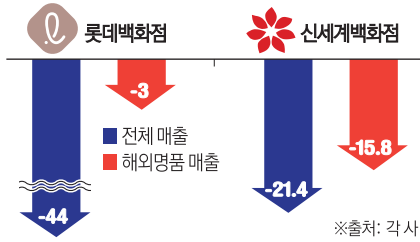
2.5단계가 발효된 지난달 28일부터 백화점을 찾는 발길은 크게 줄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 주말(8월 28~30일) 매출은 전년 같은 요일(8월 30일~9월 1일) 보다 44% 추락했다. 식품 매출이 68% 줄었고, 잡화(-61%)와 여성(-55%), 남성(-51%) 등 대부분의 분야가 저조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주(8월 21~23일)에 비해서도 20% 역신장한 수치다.

신세계백화점도 여성 패션(-26.4%)과 남성패션(-22.1%), 가전(-19.2%) 등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총 매출은 2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매출도 -18.1% 빠졌다.

코로나19에도 쿠팡이 높던 명품 매출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패션과 스포츠 등 대부분의 매출이 저조한 가운데 해외 유명 브랜드는 홀로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하던 '소년가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3% 하락했고, 직원 확진에 따른 30일 반나절 강남점 휴점 여파로 신세계의 해외브랜드 매출을 -15.8%로 수직 낙하했다.

주말 백화점 매출 신장률

(단위: %) ※8월 28~30일, 전년 동기 대비



※출처: 각 사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렇다 명품마저 고꾸라지며 매출이 급감했던 '3월의 악몽'이 재현될까 걱정이다. 3월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신장률은 -19.4%를 기록, 수 년만에 명품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여파로 전체 매출 역시 마이너스 40%라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때마침 가을 맞이 신상품이 출시되는 시점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올여름 장사를 망쳤던 패션 카테고리가 또다시 매출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거리두기 3단계 실시 여부는 백화점업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식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등과 달리 주력 품목이 의류 등 비식품인 백화점으로는 외부 활동이 거의 중단될 경우 매출 방어가 불가능해져 경험해보지 못한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설마 백화점이 문을 닫아야 하겠나 싶지만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현대百 '추석 상품권 패키지'

현대백화점이 추석을 앞두고 30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추석 상품권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30만 원 이상 상품권 구매 시에 신사임당 고서화를 그려넣은 고급 봉투(3종 중 택 1)를 증정하고, 5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응원 기프트 세트(덴탈 마스크·스낵 세트 등 5종)', '타올세트'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MZ세대 타깃 신규 브랜드 키운다

‘에이지’ ‘비에스래빗’ 등 입점

롯데백화점이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신규 브랜드 인큐베이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마니아들과 MZ세대들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를 들여와 브랜드에는 판로 확대 및 인큐베이팅의 기회를 제공하고, 백화점에는 젊은 고객들을 유입하고자 한다"며 "또한, 기존 백화점 고객들 역시 최근 브랜드 이름보다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상품에 관심이 높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롯데백화점은 행사나 팝업 운영을 통해 신규 브랜드를 검증하고,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를 발굴해 매장을 오픈하는 등 브랜드 인큐베이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5일 영등포점에는 '비에스래빗'〈사진〉이 신규 오픈한다. '비에스래빗'은 스노보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브



랜드다. 롯데백화점에서 최근 진행한 스노우보드 연합 패밀리세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비에스래빗은 잠실점과 강남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6일 동안 총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신규 고객 창출에도 기여했다.

구매 고객 중 최근 1년 동안 백화점 구매 이력이 없었던 고객의 비중이 66%였으

며, 특히 20대~30대의 경우 75%에 달했다. 기존 백화점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이 스노우보드 행사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독특한 아웃솔 디자인으로 유명한 '에이지(AGE)' 스니커즈가 팝업 스토어로 오픈한다. 에이지는 스트릿 기반 스니커즈 브랜드로, 런칭 이후 영국, 호주, 홍콩 등 세계 전역 15개국 30여 스토어를 오픈하며 매 시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밴드 오브 아웃사이드'와 콜라보한 상품이 런던 패션위크에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는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점 오픈 프로모션으로 3일부터 17일까지 20% 브랜드데이를 진행하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슈레이스, 15만 원 이상 구매시 미니백 등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착한 건물주’ 못 만나면 혜택 못 받아 소상공인에 임대료 직접 지원 늘려야”

외식업 눈물의 폐업

▶1면서 계속

외식업중앙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6월 외식 소비에 반짝 회복세가 있었으나, 7월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외식업은 60% 이상 매출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차료 및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금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전국에서 외식업은 ‘보복적 소비’에 따른 반짝 특수를 누렸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본격 지급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하거나 일부 지역은 전년 매출을 웃돌았다. 경기(7%)와 경남(6%), 부산(4%), 세종(3%), 인천, 전남, 전북(이상 2%) 등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된 7월부터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절벽이 다시 심각해졌다. 임대료까지 정상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자영업자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진행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대책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가 앞서 펼쳤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보전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많았지만 실효성이 낮았다”며 “‘착한 임대인’을 만나거나 공공기관에 입주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착한 임대

“‘착한 임대인’ 참여 562곳뿐

임대료 인하 정책 실효성 없어

영업 제한 업장에 8~9월 지원

관련 금융 프로그램 마련을”

인 운동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는 총 562곳에 그친다. 임대인은 3862명이, 점포는 3만1899곳이 참여했다. ‘임대료 인하’ 행렬이 이어지던 연초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기간 종료도 착한 임대인 증가에 제동을 건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내놓은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1~6월이다.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 50% 제공이 종료된 만큼 임대료 인하에 나설 임대인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30평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올 들어 한 차례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8월 3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매장을 운영한 결과 일 매출은 평일의 절반, 주말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2층 점포를 임대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K씨도 3월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지만 매월 200만 원의 임대료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그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커 매장을 접지도, 양도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만 허비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기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책을 늘리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제한이 생긴 식당과 PC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 조치 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8~9월에 한해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한정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CJ,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CJ그룹이 7일부터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등 6개사다.

서류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내년 2월 졸업자 예정자를 포함해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다.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계열사별 일정 따라 테스트와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전

형 등을 거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입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계열사별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J는 신입사원 채용 시 각 사별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중요한 선발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채용에서도 현업 부서에서의 적응도를 판단하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를 지속 실시한다.

각 계열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테스트 전형과 비대면 면접을 추진하여 지원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재용 부회장〉

정치권까지 나선 삼성 지배구조 압박… JY의 선택은

與 ‘삼성생명법’ 추진

지분 8.5%, 시가 28조2000억 원… 국 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이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 가치를 취득할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 시가로 바꿔 ‘3%룰’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 이어 정치권까지 지분 매각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코로나19로 사업하기도 빠듯한데, 왜 하필 지금이냐’며 침묵하고 있다.

◇비금융지주회사, 삼성전자 최소 지분 확보에 천문학적 비용= ‘삼성생명법’은 정치권이 삼성을 꼭 집어낸 법안이나 다름없다. 국내 보험사 중 자회사 지분을 시가 기준 3% 이상 소유한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셈이다. 삼성으로서는 발각 뒤잡힐 현안이다.

삼성생명은 6월 말 기준, 삼성 계열사 주식을 33조 6000억 원어치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지분(8.23%)만 28조 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보험 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이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한다. 은행이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물량(1.44%)은 약 5조 원에 달한

보험사 소유한 주식·채권 가치

현재 기준 시가에 ‘3%룰’ 적용

삼성화재·생명 두 보험계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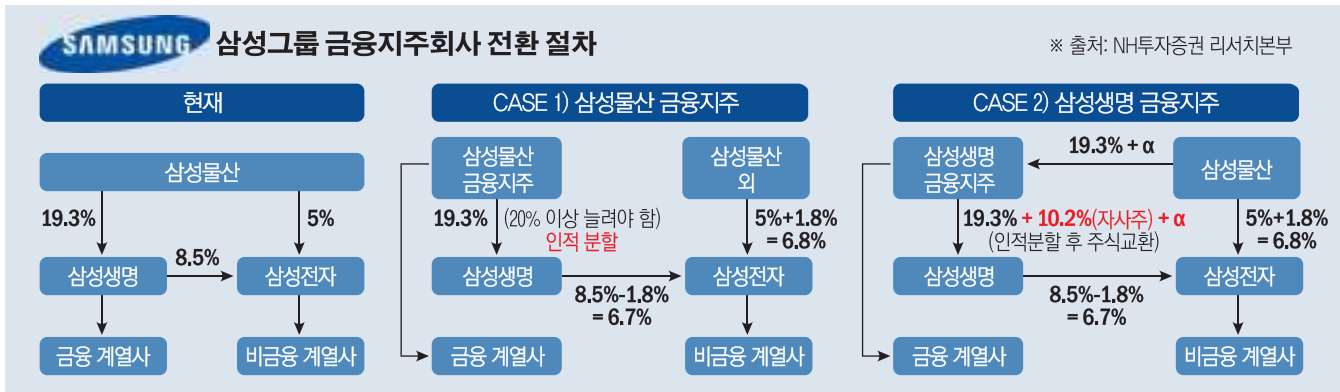
20兆~30兆 ‘전자’ 지분 팔아야

증권가 “금융지주 체제 현실적”

삼성물산 지분 매입에 그칠수도

다. 삼성의 두 보험계열사가 ‘3% 룰’을 지키려면 두 회사는 총 20조~30조 원가량의 삼성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부회장은 고작 0.7% 지분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17.48%)을 통해서다. 단일주주 기준으로 국민연금 다음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삼성생명이 주식을 팔면 지배구조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

해법은 간단하다. 삼성물산을 활용하면 된다. 삼성물산이 실탄을 마련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다. 종잣돈으로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43.44%) 등이 거론된다. 23조 원이 넘는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팔고, 그 돈으로 두 금융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다.



문제는 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았을 때 세금 5조3000억 원(장부가 8592억 원)과 거래비용이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삼성전자 지분 8.5%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의 가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확보해야 할 자원은 10조 원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올라서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유지분이 총자산의 50%가 넘으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은 다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4년 유예기간 동안 21조~55조 원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금산분리 문제도 있다. 삼성생명 지분 19.3%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현실적 vs. 삼성물산 ‘삼진’ 지분 매입=증권가가 제시하는 대안은 ‘흠결 없는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다. 앞서 본 삼성물산 등을 앞세운 비

금융지주회사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현실적인 안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투자 부문(가칭 삼성생명홀딩스)과 사업 부문(가칭 삼성생명·삼성물산 자체)으로 나누는 안이 거론된다.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그룹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홀딩스’ 아래 둔다.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생명 자체’에 두는 식이다. 삼성생명(영업회사)이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1대주주)할 수는 없지만, 소유(2대주주 이하)할 수는 있다. 최소 1.8% 지분 이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삼성생명(영업회사)이 유예기간 5년(최장 7년) 이내에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 1.8%(시가 약 6조 원)를 처분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도 완성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삼성이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현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투자부문 합병 등의 시나리오 오는 옛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전자는 13.3%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했다.

“어떠한 사항도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중이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주 가치 제고라는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유호석 최고재무관리자(CFO)가 지난달 삼성생명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놓은 말이다. 원론적인 태도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첫날에만 16兆… 카카오게임즈 ‘청약 광풍’

경쟁률 427.45대 1 기록… SK바이오팜 가볍게 제쳐
온라인 접수창구 일시 마비… ‘마통’ 신청 지연되기도

아파트 청약처럼 주식에도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첫 날인 1일 16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다. 아침부터 청약 신청이 몰리면서 기업공개(IPO) 주관사 온라인 접수창구가 잠시 마비됐다. 인터넷은행에서는 마이너스통장 신청이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첫날 증거금으로 16조4140억 원이 몰렸다. 경쟁률은 427.45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첫날에만 SK바이오팜의 경쟁률(323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사상 최대 경쟁률(1479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증권사별로 한국투자증권에 7조 7283억 원이 몰려 경쟁률 365.92대 1을 찍었다. 삼성증권(7조5455억 원)과



1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증권(1조1403억 원)은 각각 491.24, 593.91 경쟁률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체 공모 물량(1600만 주)의 20%인 320만주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으로 배정했다. 일반 투자자의 청약 증거금률은 50%로, 청약 시 원하는 금액의 절반을 미리 증거금으로 입금해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청약 첫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청약 접수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2개 주관사 계좌에 약 2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모였다. 상장 공동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9시 36분부터 온라인 청약 서비스를 약 20분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침부터 온라인 청약 신청이 대거 몰린 탓이다.

청약 배정 물량이 가장 적은 인수회사인 KB증권도 청약 시작 2시간여 만에 경쟁률이 200대 1을 돌파했다.

통상 공모주 청약 시 둘째 날에 청약이 몰리는데 시장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초반부터 경쟁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셈이다. 심지어 카카오뱅크에선 이날 오후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접속이 간헐적으로 지연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청약하기 위해 비교적 간편한 신용대출을 받아 청약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쏠린 결과로 보고 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금융위원장 엄포에 고리대 내리는 증권사

“신용융자에 기준금리 반영을”
미래에셋대우 9.0%→8.5%
케이프투자증권 2.0%P 낮춰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8월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증권업계 간담회)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엄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신용거래약관을 개정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영업점 외 계좌(다이렉트 계좌)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기존 9.0%에서 8.5%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예탁증권보대출에도 똑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케이프투자증권도 약관을 변경하고, 기존 8.5%이던 30일 미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6.5%로 2.0%포인트 낮췄다.

키움증권은 신용융자 대응비율을 기존 80%에서 75%로 낮췄다. 이 비율이 줄면 그만큼 융자금액이 축소된다. 대출조건을 높여 추가 잔액 상상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고리대’ 영업이 개인 투자자들의 모험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증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에 빌려주는 돈이다. 매수한 증권이 담보된다. 주가가 하락해 담보 가치를 위협하면 증권사는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시행해 자금을 회수한다. 돈 떼일 위험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연 이자율이 적게는 4%, 많게는 10%가 넘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스톡옵션 잭팟 기대감… 카카오게임즈 임직원 ‘함박웃음’

최대 370% 차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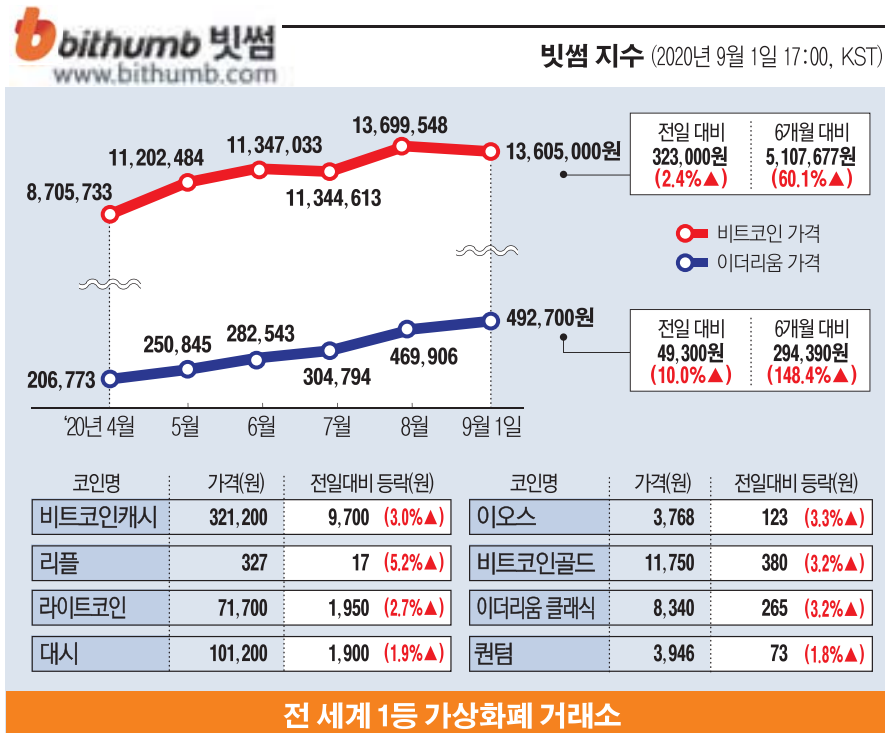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SK바이오팜 등 최근 스톡옵션 대박 신화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장을 앞둔 카카오게임즈 임직원들은 최대 370%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각자 대표와 남재관 전 등기임원 등 443명의 임직원

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587만8500주에 달한다. 이중 행사(160만2500주)되거나 퇴사 등의 이유로 취소된 물량(105만6336주)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미행사 수량은 321만9664주에 달한다.

조 대표는 5회차(부여일 2017년 12월)에서 15만 주를 받았다. 행사가격은 1만4727원이다. 카카오게임즈 공모가 회람 범위의 최상단인 2만4000원으

로 책정된 것을 고려하면 조 대표가 거둘 수 있는 차익은 13억9000만 원이다. 행사 기간도 2019년 12월부터라서 카카오게임즈 상장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에 걸쳐 매해 3분의 1씩 분할 행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한꺼번에 전량을 행사할 수 없다. 남재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직원들은 최대 371.1%의 차익이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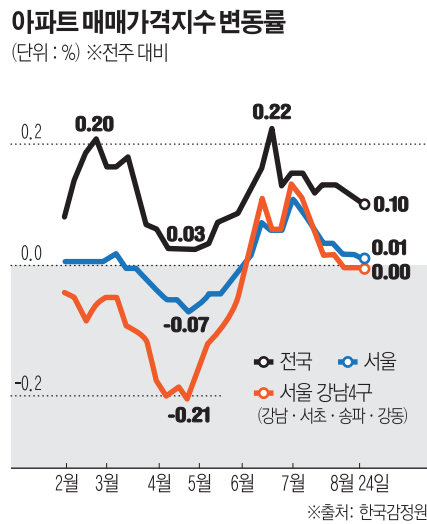
코로나 재확산에 상승세 꺾여...집값 '변곡점' 맞나

거래 절벽속 아파트 매매시장 강타
'잠실 파크리오' 144㎡ 최고 3억↓
정부 규제에 경기 불확실성 커져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잇따른 정부 규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매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발 거래시장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집값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형은 7월 25억 원에 매매 거래됐으나 최근 22억~23억 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최고가보다 최대 3억 원 가량 낮고 시세보다 1억~2억 원이 낮다. 그나마 사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잠실 파크리오의 경우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자 '풍선효과'로 최근 거래가가 장황한 단지 중 한 곳이었다. 신천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래도 이쪽 동네에선 매매가 활발한 편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수세가 줄면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다. 고가 매물만 나와 있어 거래가 뜸한 상황인데, 코로나19 영향이 더



정부의 잇단 규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약해진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해지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강남권뿐 아니라 '마용성' (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도 거래가 잠잠한 모습이다. 마포구 아현동 R공인 관계자는 "매수대기자들은 아직 많지만 집주인들이 여전히 호가를 높게 부르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주택 지표로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넷째주(24일 기

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줄었다.

강남4구의 경우 상승폭이 크게 꺾이며 서초·송파구는 3주 연속 보합(0.00%)을 이어갔고, 강남구와 강동구는 3주 연속 0.01%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의 경우 최소 4

주에서 8주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9~10월에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거래시장 위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못 잡은 집값을 코로나가 잡게 생겼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어찌됐든 정부 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집값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 위축과 함께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지고 있어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추세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한동안 약세 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거래를 잡아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 부족이란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선영 기자 moon@

지방 분양 '양극화'...일부 '미분양 늪'서 허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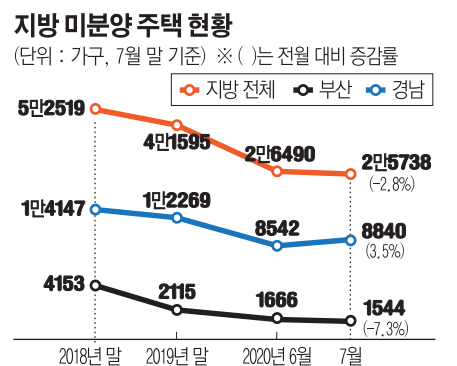
김천·경주·창원 4년째 관리지역
광양·속초·제주서도 미분양 속출
부산·대구 청약시장은 반등세 뚜렷

#. 2014년 분양한 경남 통영시 '주영 더 팰리스5차'는 지난 6월 기준으로 976가구 가운데 777가구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영시는 2018년 이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부산 부산진구 '양정 포레힐즈 스위트'는 지난 5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A형 199가구 모집에 2만3168개 청약통장이 몰려 최고 116.4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평균 청약가점은 전 평형 모두 60점대 이상이었던. 부산진구는 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지방 청약시장이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 지역경기가 침체된 경남 창원시 등에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지방광역시 등 핵심지는 공급 물량이 해소되면서 청약 열기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일 기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13곳으로, 이 가운데 지방이 12곳이다. 지난달 전국 15곳에 비하면 2곳이 줄었지만, 관리지역은 미분양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 경북 김천시와 경주시, 경남 창원시는 2016년 지정된 이후 4년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기준 미분양 주택이 4857가구에 달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3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약 17%가 창원시에 몰려있는 셈이다. 미분양 여파로 청약 미달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분양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창원진해 비전시티 우방아이유엘'은 562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경남 창원시 이외 도시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전남 광양시 마동 '광양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역시 일부 주택형(전용 84㎡)이 미달됐고, 지난 6월 강원 속초시에서 분양한 '골든렉시움'은 모든 주택형에서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제주 역시 지난 7월 제주에서 분양한 '노형 벽강하이본타워 7차'와 서귀포시에서 분양한 '서흥동 헤리티지' 모두 미달됐다.

반면 부산은 반등세가 뚜렷하다. 지난 6월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부산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 전용 101㎡형은 167가구 모집에 2448개 청약통장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53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형은 256가구 모집에 무려 1만5821명이 신청해 5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역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대구 동구 '더샵 디어엘로'는 전용 84㎡형 53가구 모집에 8802명이 몰려 16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14㎡형에서 기록한 336.5대 1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대우·SK건설,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2단계 수주

공사비 2047억...2024년 6월까지

대우건설은 SK건설과 함께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2단계 액화천연가스(LNG)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울산 북항 내에 21만5000㎥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산 약 100만 톤 용량

의 기화송출설비 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SK건설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설계·구매·시공·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정도로 공동 수행한다. 공사비는 약 2047억 원으로 지분율은 대우건설 51%, SK건설 49%다. 공사는 이달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 진행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 STORY 브라보! 음악에 치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중장년 음악문화 서바이 하드워킹은 변형어도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앨범들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권 선물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션지 위 음표처럼 띄웁니다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브라보! 만난 사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술" 배우 이준기, 아티스트로서 재능의 인생을 열다

모터사이클은 평생과 같아... 새로운 세계로 떠나다 김민아, 운수업 모토로 대표가 올린 모터사이클의 새로운 경지

양방과 한방이 손잡고 걷는 변화에 이르는 길, 차이를 통해 평화를 꿈꾸는 우영호 작가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름 걸리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석이 만난 귀한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에게 그렇게 호소한 인사말을 들을 거를 못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농한 김영호(44) 씨. 그의 귀는 알은 귀였나? 그는 "농지며 잡이하며 겨우 살 수 있으니 문만 오르는 지인의 달력지근한 권유를 받고 설레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김해영의 느린 여행
바려진 사슴집의 재탄생 '구암리자온길'

백제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친절한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지 말고는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7년 전 구암면 구암리 자온로에 재탄생 프로젝트라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상재민'이었다. 호기심을 얻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다시 가봤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농수면 더 받는 '돌돌한' 국민연금

생생 부동산 현장
비주거지역에 가려진 '알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려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강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강신도시'의 잠재된 미래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산업 결국 피소 송파구 “무단점거 풍납공장 철수”

풍납토성 복원 핵심지역
영업권 보상방안 등 이전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을 상대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용지 사용허가를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불허한 만큼 삼표산업은 7월 이후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으로 공장 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삼표산업의 사옥 및 공장 부지 일부를 연차별로 협의의 취득해 왔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2015년 남은 토지에 대한 취득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는 등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삼표산업은 2016년 해당 사업인정고시

로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삼표산업이 승소했으나 2심이 진행되던 2017년 9월 송파구 등이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서성벽, 석축과 함께 성문이 있던 터로 추정되는 유구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은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이거나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해 성벽, 해자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도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춰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사업은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삼표산업의 레미콘공장을 이전해야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삼표산업은 철수하지 않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 송파구와 삼표산업 측은 토지보상 외에 설비비용, 영업권 보상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16필지 중 5필지는 송파구, 11필지는 서울시 소유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이 위치한 부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다량

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유적 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 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용지 소유권은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1월 송파구에 이전됐다. 삼표산업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6월 기각됐다.

송파구는 공장 이전 준비 등을 이유로 6월 한 달간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 측에 한시적인 사용허가를 내줬다. 이후 송파구는 재연장 불가 합의를 깨고 삼표산업이 다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불허 처분을 내렸다.

송파구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위치한 레미콘공장 부지를 2만1000㎡ 규모의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보상금 544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송파구 관계자는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유재산 인도소송 이외에도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 이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표산업 측은 “현재 사태 파악 중”이라면서 “공장 이전 등을 통해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협조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인석 기자 mystic@
이다원 기자 leedw@



‘바비’보다 센 태풍 ‘마이삭’ 북상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으로 세력을 키워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접근 중인 1일 오전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에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자가격리자는 대리 가능”

코로나19 감염 예외 적용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3일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3~18일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접수할 수 있다.

졸업자는 출신고나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대리접수서약서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수능 응시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울시, 카드 자동결제 ‘지갑없는 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113곳 적용

서울시는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113개소에 ‘지갑없는 주차장’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지갑없는 주차장’을 시범 운영했다. 그동안 주차장 이용객들은 주차관리인에게 직접 결제하거나 요금 단말기

에 카드를 갖다 댔지만 이제는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갑없는 주차장’은 사전등록 차량정보 및 결제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차량번호가 인식되고 요금도 빠르게 정산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객의 입출차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세워 요금을 조화하고 결제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갑없는 주차장’의 자동결제를 위해서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번호와 결제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가입자 확보와 사업 안착을 위해 사전등록으로 ‘지갑없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내년 6월까지 주차요금을 10% 범위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기권 우선 신청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실용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QDS 이나원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알고,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사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원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지난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00권의 지름 / 200쪽 / 국문판권 / 214,0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읽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훈 지음 / 200쪽 / 국문판권 / 215,000원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OPEN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 / 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KB증권

“서울 집값 거품 아냐...지방 소외 더 심해질 것”

필명 ‘빠송’...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강남3구·용산 ‘불박이 입지’ ...경기권선 과천·성남·하남·광명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변수로 ‘3기 신도시·광역교통망’ 꼽아

“거품요? 지금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선택은 단연 ‘뚝뚝한 한 채 갖기’입니다.”

김학렬<사진>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꼭 하고픈 조언은 무엇인가’고 묻자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다. 김 소장은 한국 부동산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본명보다 필명 ‘빠송’으로 더 유명한 그는 ‘부동산계의 아이돌’, ‘최고의 부동산 입지 전문가’ 등 화려한 수식어도 따라 붙는다. 올해 들어 정부와 부동산 시장이 맞서자 집값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투데이는 1일 김 소장을 만나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실거주 목적의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3040세대와 투자를 계획한 5060세대에게 “올해 안에 ‘뚝뚝한 한 채’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뚝뚝한 한 채를 갖는 것”이라며 “이런 흐름이 3년 전부

터 진행됐는데 이제야 시대적 대체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과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입지’별로 허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뚝뚝한 한 채 선호현상은 비슷한 일이 10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거품 시장이었고 지금은 거품 시장이 아니므로 조건과 차원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김 소장은 이어 “과거 경기 과전시가 전국 262개 시·군·구 중에서 최고 시세를 기록했는데, 당시 서울 강남구 집값을 제친 것을 보며 ‘이제 이 시장도 곧 정리되겠구나’ 했지만, 지금은 강남구가 흔들리지 않는 ‘톱’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끝은 늘 강남구가 승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됐다”며 “서울 서초·송파·용산구 등 ‘빅4’ 지역은 서울 ‘불박이 입지’가 됐다. 즉, 거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과천·성남·하남·광명시 역시 한동안 경기권에서 경쟁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좌우



할 변수로 김 소장은 ‘3기 신도시’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았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인기 지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곳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소장은 서울과 지방 집값 격차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입지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지방은 시장 소멸론이 나올 정

도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당분간 서울과 지방의 집값 디커플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즘 전세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 물량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지 않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다주택자를 통한 물량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재정 한계가 있다”며 “나머지 필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민간이 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민간 공급자들이 공공 부문과 공존하는데,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부동산 정보 전달 채널 다양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유튜브 멤버십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택트 시대를 맞아 정보 전달 창구를 다양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빠송의 세상 답사기’는 구독자 1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에
오준석 신사업총괄전무 선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명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신사업 개발 및 전략 총괄 전무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BNP파리바 그룹의 글로벌 보험 자회사인 BNP파리바 카디프 산하의 한국 생명보험법인이다.

오 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및 규제, 컨설팅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합류 직전 14년간 미국계 모기지보험 전문회사인 제위스의 한국지사 대표를 지냈다. 오 사장은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 칼슨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MBA) 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한전KDN 신임 상임이사에
정재훈 전 전력ICT개발원장

한전KDN 신임 상임이사에 정재훈 전 전력ICT개발원장이 선임됐



한전KDN은 지난달 31일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정재훈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전력융합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재훈 상임이사는 1961년 생으로 경성고와 미국 Point Park University를 졸업했고, 1996년 한전KDN에 간부직으로 입사해 계통사업처장, 경기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전력ICT개발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전력거래소 설비 구축 유공으로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경영’ 송병춘·‘교육문화’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 임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 송병춘 경영이사, 최성원 교육문화이사 등 상임이사 2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는 경영이사와 교육문화이사, 기술이사 등 3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천연물 신약 전문가 이현용 씨
우리바이오, 연구소장으로 영입

우리바이오는 동화약품 천연물 연구팀 출신 이현용 이사를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현용 신임 연구소장은 2003년 동화약품에 입사, 17년간 천연물 소재 탐색에서 원료 생약 표준화, 약효 평가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주도한 천연물 신약 전문가이며 약사이자 한약조제사로써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 자생식물을 이용한 만성 질환 및 호흡기 치료제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다수의 천연물 소재 신약에 대한 7건의 논문 발표 및 9건의 특허를 출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머스크, 저커버그도 제쳤다
‘136조원’ 세계 3위 부호 올라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제치고 세계 3위 부호로 올라섰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 집계에서 3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재산이 117억 달러 늘어난 1150억 달러(약 136조 원)로, 1억 6900만 달러 줄어든 1110억 달러의 저커버그를 제치고 세계 3위 부자로 경종 뛰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 재산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무려 878억 달러 폭증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 500% 가까이 폭등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세계 1위 부자인 베이조스는 올 들어 재산이 876억 달러 불어나 현재 2020억 달러에 이른다. 게이츠가 1250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현대차 정몽구 재단 ‘동편제마을 국악 축제’ 온라인 개최
안숙선 명창·미스트롯 송가인·국악소녀 송소희 등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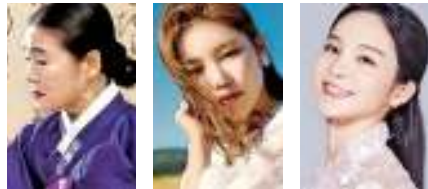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 ‘제6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열린다.

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떨어진 거리, 하나 된 소리’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상급 명인과 명창들의 흥겨운 우리 소리와 연주가 벌어지는 축제는 총 16개의 VOD 영상으로 제작돼 ‘예술세상TV’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된다.

6일 서막을 여는 축제는 네이버 라이브로 진행한다. 저녁 7시 개막공연에서는 3

세대에 걸친 4명의 여성 가객의 열정적인 국악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 안숙선<왼쪽 사진>명창, 소리꾼으로 재탄생하는 미스트롯 송가인<가운데>, ‘희심곡’으로 대표되는 김영임 명창, 국악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전달하는 국악 소녀 송소희<오른쪽>의 열정적인 국악 향연이 준비되어 있다.

개막공연 전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음악을 현대의 시나위로 풀어내는 ‘양상불 시나위’,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판소리꾼 이나래와 대를 잇는 올곧은 소리



의 장문희 명창이 공연하는 한낮의 정자마루 콘서트가 진행되며, 6일 오후 4시에 네이버 LIVE로 생중계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권오규 이사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동편제마을을 국악 거리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년과 달리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은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껏 감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도레이첨단소재 ‘제26회 통계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도레이첨단소재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통계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매월 생산 및 조업현

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출함으로써 광업제조업 국가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온 노력을 인정받아 통계유공자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계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과장급 전보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고관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남철기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강호원 △디지털콘텐츠과장 이주식 △생명기초조정과정 조현숙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 △융합기술과장 이주원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홍순정
-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소비자과장 윤상기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남동우
- ◆문화재청 ◇3급 승진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장 박희웅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장 김중순 ◇4급 승진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문명철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 김용구 △코로나19미래대응반 박정섭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이명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단장·센터장급 △뇌과학연구소 뇌과학기획단장 조일주 △뇌과학연구소 뇌과학운영단장 추현아 △청정신기술연구소 수소·연료전지연구단장 장중현

- △〃 에너지소재연구단장 김동익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스핀융합연구단장 민병철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인공뇌융합연구단장 이수연 △AI·로봇연구소 인공지능연구단장 임화섭 △〃 헬스케어로봇연구단장 이득희 △바이오·메디컬융합연구본부 바이오닉스연구센터장 김진석 △〃 테라그노시스연구센터장 김세훈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장 조소혜 △〃 나노포토닉스연구센터장 고희덕 △〃 극한소재기술연구센터장 문명운 △〃 소프트웨어융합소재연구센터장 김희숙 △〃 계산과학연구센터장 한상수 △〃 전자재료연구센터장 강종운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 엄영순 △〃 차세대태양전지연구센터장 정중현 △연구지원·데이터지원본부 도핑콘트롤센터장 손정현 △〃 특성분석센터장 김낙균 △강릉분원 천연물소재연구센터장 정상훈 △〃 천연물인포매틱스연구센터장 권학철 △〃 스마트팜융합연구센터장 김형석 △전북분원 구조융합소재연구센터장 정용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

- 생명기초사업센터장 홍미영 △평가분석본부 제도혁신센터장 최대승 △재정투자분석본부 예비타당성조사3센터장 안상진 △경영기획본부 시설운영실장 김기탁 △혁신전략연구소 혁신네트워크실장 이동욱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승진 △책임행정원 김미경 △선임사무원 박일란 △전문사무원 김란미 △전문사무원 연정화 △전문사무원 이남순 △전문사무원 이대현 △전문사무원 이승진 ◇보직 △해운·물류연구본부부장 연구위원 김태일
- ◆DB금융투자 △프로젝트 센터장 김영훈 △투자금융2팀장 정연창 △종합금융1팀장 최동식
- ◆한국일보 △뉴스룸국 호남취재본부(부장대우) 전주주재 김중구 △신문국 에디터 한준규
- ◆중앙그룹 ◇중앙일보플러스 △디자인에디터 겸 선데이국 편집에디터 이영호 ◇중앙일보 M&P △기술담당(부장) 박영식 ◇JTBC PLUS △엘르BU 엘르사업팀장 겸 코스모폴리탄사업팀장 정명동 △코스모폴리탄BU 코스모폴리탄기획팀장 임은정 △에스콰이어BU 에스콰이어기획팀장 박광수

부음

- ▲신영숙 씨 별세, 정몽무(엑스페론 상무)·옹우·연정·영화·선희 씨 모친상, 이우백(에너지경제신문 전무, 전 서울신문 광고국장)·정성일 씨 장모상 = 1일, 경기 용인시 보정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7시, 070-8858-9402
- ▲정분순 씨 별세, 장길화(대구대총동창회장)·길래(세안정기 전무이사)·길성(하나글로벌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일,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3일 오전 11시30분, 053-560-9570
- ▲유옥록 씨 별세, 김환열(전 대구MBC 사장)씨 모친상 = 1일,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3일 오전, 010-3527-1002
- ▲심희택 씨 별세, 심상원(자영업)·효경·수경·소영 씨 부친상, 박은경 씨 시부상, 이희열(연합뉴스기자)·류기석(자영업)·조영석(제이엔제이트레이딩 대표) 씨 장인상 = 1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3일 오전 6시, 02-6986-4440

중국 **은 지금**



박 승 찬
영인대 중국학과 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미국의 대한민국 압박에 의해 한중 간 경제협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국가 간 경제협력을 결코 국제정치·외교적 잣대로 볼 필요가 없다. 미래 한국의 실익과 성장을 고려한 한중 경제협력의 접점을 최적화시켜 나가면 된다.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간 이슈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3.0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코로나 및 미·중 간 패권다툼 속에서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게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았다. 이에 앞서 이뤄진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향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한령 해제 등 본격적 한중 경제협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1.0 시대는 1992년 수교 이후 2000년대까지 산업 간 분업 및 산업 내 분업의 수직적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과 그에 따른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양국은 본격적으로 품목 내 수평적 분업과 함께 경쟁하는 2.0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를 두고 대부분은 향후 산업 간 물리적 대결이 본격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한국 압박에 의해 한중 간 경제협력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국가 간 경제협력을 결코 국제정치·외교적 잣대로 볼 필요가 없다. 미래 한국의 실익

과 성장을 고려한 한중 경제협력의 접점을 최적화시켜 나가면 된다. 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간 이슈를 계기로 한중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3.0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리적 근접성은 산업 가치사슬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교류와 협력이 끊어진 시점에서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의 물꼬는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및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 시범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6.8%로 떨어졌다가 2분기 3.2% 성장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사회용자총액, 구매관리자지수(PMI), 신규 주문 등 8대 경제선행지표들

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하반기 인프라 투자와 소비 측면의 수요가 살아난다면 U자형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좁혀지면 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플랫폼 기능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 하락과 경제침체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양국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이 미래 협력의 씨앗이 되도록 서로의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퍼즐게임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디지털 산업의 경쟁과 공생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양국 간 진행 중인 ‘청천(晴天, 대기협력사업) 프로젝트’와 같이 상호협력의 공간이 넓은 그린뉴딜 산업의 경우엔 더욱 확장시키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한중 간 개방형 혁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혁신창업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와 인력 양성이 이뤄진다면 양국 간 미래 창업혁신의 협력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 혁신 스타트업 육성은 양국 모두 새로운 혁신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하는 영역으로 미래 협력의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한중 혁신펀드와 DNA를 융합해야 한다. 혁신창업의 핵심은 시장지향적 투자발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발굴 능력이 최적화되어야 성공 확률도 높다. 특히 초기 혁신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부터 해외진출, 유통망과 협력 파트너 연결, 기업공개(IPO) 및 인수합병(M&A) 등 양국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간회수(Exit)까지 선순환의 밸류업 전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

다가오는 한중 경제협력 3.0 시대는 물리적 대결과 전략적 경쟁을 넘어 화학적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양국의 미래 혁신산업 육성이 상호보완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뒤따라야 한다. 나 홀로 성장과 혁신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한중 양국 협력의 틀을 깨는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도시와공간 대표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다세대·연립주택도 매매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가주택의 거래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 격지수는 0.15% 상승을 기록했다.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도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높아졌다.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서울에서는 오히려 낮아졌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4.37로, 1년 전(4.62)보다 0.25 내려갔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가 아파트

값이 12.9% 오른 1년 동안 저가 아파트값은 19.5% 상승한 것이다. 전셋값도 큰 폭의 상승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24일 기준)은 0.11% 상승했다. 61주 연속 상승 행진이다. 성북구(0.16%), 마포구(0.15%)를 비롯해 강남(0.16%)·송파(0.16%)·서초구(0.15%) 등지가 많이 올랐다. 전세 매물 감소폭은 강남보다 강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 서울의 강남보다는 강북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전셋값이 회복하는 동안 강남이나 한강변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된 고가주택의 일방적 상승 장세가 올해부터는 약화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강

북이나 외곽지역 쪽으로 상승세가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약세를 보였던 저가주택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 본격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전셋값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더 심화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늘러났기가 본격화되자 시중에는 전세 물건이 씨가 말라 버렸다. 또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증과 조치는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저가주택의 매매가는 바로 밀려 올라간다. 저가주택일수록 전세 매매가의 갭이 좁기 때문이다. 고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밀려난 전세입자는 저가 지역의 전셋값을 밀어올릴 뿐 아니라 새로운 매수세를 만들기도 한다.



곽진산 금융부/jinsan@

‘고령친화’라는 이름의 가해

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보안을 이유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는 젊은 사람이 있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을 수월하게 사용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만약 69세임에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EDM을 틀고 하루를 시작하는 누군가에게는 고령 앱이 억울할 수 있

다. 그중 하나의 정책인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은 ‘고령자’ 전용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설치해 가족 등 지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운영안이 담겼다. 이에 누구는 “내 자산을 가족에게 검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우리는 스

스로 할 수 있다”는 이들에게는 고령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마뜩잖게 다가오는 것이다. 점포가 사라지는 세상에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말도 그저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

정말 점포가 사라지고 세상에 모바일 앱만 달랑 놓인 세상이 온다면 노인은 그대로 방치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가설을 세운 뒤에 정부는 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가설이 필요하다. 점포가 사라지고 세상에 모바일 앱만 있다면 분명히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고 말이다. 이것은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소외되는 이들을 품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노인’이라 규정할 권리는 없지 않을까.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앤디 그로브 명언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할 용기를 준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을 30년 넘게 이끈 미국 IT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헝가리 출신 유대인인 그는 나치 치하에서 홀로코스트를 피해 다니는 유년시절을 보낸 후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정권을 피해 스무 살에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 그는 오늘 세상에 나왔다. 1936~2016.

☆ 고사성어 / 임시이구(臨事而懼)
큰일이 닥쳤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두렵고도 신중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 자로(子路)가 “선생님께서 삼군의 군대를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孔子)의 대답.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다가 죽더라도 후회가 없는 사람과는 내 더불어 하지 않는다. 내가 같이하는 이는 반드시 일에 임해 두려워하며[必也臨事而懼], 도모하기를 좋아하되 반드시 이루어내는 자이다.” 출전 논어(論語) 술이(述而)편.

☆ 시사상식 / 밈(meme)
영국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 복제된 것이라는 뜻의 ‘mimeme’를 ‘gene’(진·유전자)의 발음에 빗대 명명했다. 완성된 정보(지식, 문화)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말과 문자를 매개체로 세대를 넘어 보존, 전파되는 것을 뜻한다. 친구에게 들은 노래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면 그 친구는 죽더라도 노래는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을 복제한다.

☆ 유머 / 투철한 직업정신
남자가 길을 걷다 비명 소리가 난 집으로 달려갔다. 사내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삼킨 것을 보고 놀란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남자가 아이 발목을 잡고 들어올려 몇 번 흔들자 동전이 튀어나왔다. 아이 엄마가 “그걸 빼내다니... 의사예요?” 라고 하자 남자의 대답. “아뇨. 국제정 직원입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말로 하는 통화정책

데스크칼럼

김 남 현

기획취재팀장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점 하나를 찍고 지움에 따라 님이 되기도, 남이 되기도 한다는 노랫말도 있다. 이렇듯 말과 글은 인간관계 속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비록 인간사 뿐만은 아닐 것이다. 말과 글은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비용을 치른 경제정책보다도 되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정책을 잘하는 대표적인 곳이 한 국은행도 인정한 미국 연준(Fed)이다. 실제 2016년 5월 초 한은이 발표한 ‘제로 금리하한에서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제로 금리 하한기간에서도 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은 장기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2008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결문 발표와 연준 의장 의회발언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한은도 그 어느 때보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떨어지기 시작한 한은 기준금리가 벌써 0.50% 수준에 와 있는 데다, 코로나19는 2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처럼 제로금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가 소 규모 개방경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더 내릴 수 없을 만큼 내린 실효하한에 와 있다는 점에서 한은이 추가로 내놓을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한은 역시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여러 금통위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은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특히 통화정책의 여러 파급 경로 가운데 자산가격 경로나 기대 경로는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고채 직매입(단순매입)의 목적 등에 관해 시장과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한은 커뮤니케이션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달 24일과 27일 각각 있었던 임시국회 업무보고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대표적 예다.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이번(8월) 금통위는 너무 생뚱맞다. 성장률은 낮춰 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멘소리를 냈다.

한은으로서의 억울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8월 24일이나 27일이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괄적으로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24일은 비둘기파(통화 완화)적으로, 27일은 매파(통화긴축)적으로 받아들였다. 어쩌면 더 큰 비둘기를 원했던 시장의 욕심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거창한 말로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를 예상하지 못한 한은의 실수다.

8월 31일 진행된 국고채 단순매입도 혼

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총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당장 단순매입을 실시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었다. 반면, 한은은 그 하루 뒤인 28일 1조 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31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보니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순매입과 달리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날린 셈이다.

그 사이 국고채 3년물은 0.9%, 10년물은 1.5%를 돌파하며 각각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채권금리가 속절없이 오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AIT) 도입 영향도 있었겠지만, 대내적으로는 8월 금통위 실망감에 더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 등에 따른 수급 부담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도 더해지고 있다.

한은은 올 들어 6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다. 한은이 단순매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연간 기준 벌써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총재도 우려했듯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수해 통화량을 늘리는 소위 ‘재정의 화폐화’ 가능성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필요할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쓸 카드가 많지 않은 지금, 말로 하는 통화정책을 보다 세련되게 가다듬는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kimnh21c@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59조 원)을 합치면 1.6% 증가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 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하는 준(準)전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재정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공격적 재정의 필요성은 물론 크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0.7% 증가한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이 30조 6000억 원으로 20% 늘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 또는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결국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90조 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945조 원으로 올해(839조4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43.5%에서 46.7%까지 높아진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4% 수준에 이른다.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세수(稅收)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탓이다. 경기 부진이 깊어지고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년 국세 등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겨우 0.3% 늘어난 483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도 2020~2024년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7%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계속 나랏빚만 늘려갈 수는 없다. 거둬들인 팽창재정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부담이다.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이 큼에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은 생산적 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투입 효율을 높여야 한다. 특단의 지출구조조정도 급선무다. 관행적 예산 항목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제거하고,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부터 정비해야 한다. 최대한의 예산 절감으로 상황 악화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남겨 놓아야 한다.

하유미의 고공비행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길을 가다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딱 이런 기분이었을까.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정 의원은 “나와 많은 회원이 2003년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 국민의 힘이다.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비난했다. 여기서 띄어쓰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사실 많은 이들의 첫 반응도 “와~!”보다는 “음...?”에 가까웠을 것이다. 우선 국민의당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 외에 국민참여신당, 국민새정당 등 ‘국민’이 들어간 정당들도 의외로 많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또 당명에 ‘당’을 없애겠다는 첫 시도와 달리 여전히 ‘국민의힘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냥 ‘국민의힘’이라 불러야 할지 이래저래 헛갈려 한다. 입에 딱 달라붙지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않는다. 물론 30여 년간 ‘국가·나라’ 중심의 보수 당명 체계를 뒤엎고 새 당명에 ‘국민’을 넣은 것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도 내포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새 당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컸는지, 베일이 벗겨지자마자 이래저래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온다.

게다가 7개월이라는 당명 수명은 30년 보수정당 역사상 ‘초단기 보수당 1위’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1위를 탈환한 셈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1996년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당명을 바꿔 새로 창당한 ‘신한국당’이 1위였다.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가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되며 곤경에 빠지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 외환 위기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7년 11월 민주당과 합당해 새롭게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된다. 신한국당은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많은 잡음과 삐걱거림 속에서 통합당은 국민의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까. 사실 당명도 당명이지만, 내면을 짚아주고 내실 있는 당으로 혁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완패했고 탄핵이라는 충격 여파도 아직 남아 있다. 당명도 여러 번 바뀌 봤지만 쇠신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에는 거대 야당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무기력함 뿐이었다.

이쯤 되면, 통합당 지도부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이룰 능력이 있는가에 예의주시 중이다. 과거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었고 지난 선거에서 계속 패배하며, 특히 4월 15일에는 엄청난 패배를 겪고 당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공감하고 있다.

김 위원장 말대로 당이 변화한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국민이 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저 당이 별수 있겠냐”는 소리는 절대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jscs508@

☞세무, 특!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종과세율 제외 범위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종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8월 12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는 주택

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개정안은 취득세 종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저가 주택과 가정어린이집, 5억 원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 등은 종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가구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8% 종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 인정 기간은 3년이다.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종과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 범위엔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명하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경우엔 종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한 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빨리 가는 방법보다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당신

비어있는 관객석 앞에서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 당신

면접장으로 향할 수는 없어도
소중한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당신

여럿이 함께 있는 곳일수록
서로를 더 배려 하게 된 당신

달라진 시대,
한 명 한 명의 당신이 원하는
SK텔레콤은 다 다르기에

5천만 명의 매일을 위한
5천만 개의 SK텔레콤으로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